

傳統明紬의 正統性과 繼承方案
-慶州 頭山마을 新羅明紬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정 병 모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12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韓 順 嬉

韓順禧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2017年 12月

목 차

목차.....	i
그림차례.....	ii
I. 머리말.....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4
3. 연구방법과 범위.....	5
II. 우리나라 명주의 역사.....	7
1. 선사시대.....	8
2.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11
3. 고려시대.....	21
4. 조선시대.....	22
III. 두산명주의 정통성.....	25
1. 전통명주의 특성.....	25
2. 전통명주로서 두산명주의 현황.....	27
3. 두산명주의 정통성.....	38
IV. 전통명주의 계승과 활용방안.....	57
1. 전통명주로서 두산명주의 가치.....	57
2. 전통명주 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	88
(1) 무형 문화재로서 두산리 전통명주의 가치.....	89
(2) 무형문화재 단체지정 필요성.....	92
3. 두산명주의 활용방안.....	93
V. 맺음말.....	103
VI. 참고문헌.....	106

그림 목차

그림 1. 방추차.....	9
그림 2.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32
그림 3. 명주체험관.....	32
그림 4. 명주염색관.....	32
그림 5. 베틀가.....	38
그림 6. 적견사.....	40
그림 7. 명사봄고.....	41
그림 8. 적견사.....	41
그림 9. 적견사.....	42
그림 10. 적견사.....	43
그림 11. 적견사.....	44
그림 12. 명사봄고.....	45
그림 13. 위사도호.....	47
그림 14. 양모는너비.....	47
그림 15. 베매기.....	48
그림 16. 베매기.....	48
그림 17. 베매기.....	49
그림 18. 두산리 베매기 뱃불.....	49
그림 19. 두산리 베매기 쌀풀.....	49
그림 20. 두산리 베매기.....	49
그림 21. 두산리 베매기.....	50
그림 22. 직기.....	51
그림 23. 농경직도.....	51
그림 24. 길쌈.....	52
그림 25. 베를 짜는 여인.....	52
그림 26. 물레와 베를 짜는 여인.....	53
그림 27. 양모는자비.....	54
그림 28. 직기(두산리).....	54
그림 29. 다듬이질.....	55
그림 30. 다듬이질.....	55
그림 31. 다듬이질.....	56

그림 32. 다음이질	56
그림 33. 베짜는 도구	58
그림 34. 뽕밭조성	60
그림 35. 개미누에	61
그림 36. 누에치기 1령	61
그림 37. 누에치기 2령	62
그림 38. 누에치기 3령	62
그림 39. 누에치기 4령	63
그림 40. 누에치기 5령	63
그림 41. 싹에 올리기 직전	64
그림 42. 싹에 올려진 누에	65
그림 43. 누에고치수확	65
그림 44. 실뽑기	68
그림 45. 실뜯기	69
그림 46. 실 말려 보관하기	69
그림 47. 광채나르기 전의 실	70
그림 48. 광채나르기	71
그림 49. 날꼬지 구멍으로 날실통과	71
그림 50. 실 감기 깡통	72
그림 51. 1필 길이를 자로 잰	72
그림 52. 날실 올 세기	73
그림 53. 새쫓기	73
그림 54. 참새 개새 엇갈리는 그림	74
그림 55. 베 나르기	74
그림 56. 베 거두기 전	75
그림 57. 손에 감기	75
그림 58. 바디종류	76
그림 59. 바디실 꿰기 준비	77
그림 60. 사침대 끼우기	77
그림 61. 바디실 꿰기 그림	78
그림 62. 바디에 실꿰기	78
그림 63. 꼬장계에 묶인 날실	79
그림 64. 풀칠하기	80
그림 65. 도투마리에 감는 작업	80

그림 66. 꾸리감기	81
그림 67. 실과 북	81
그림 68. 잉아걸기	82
그림 69. 부테야와 쫓신	82
그림 70. 베틀 명칭도	82
그림 71. 잉아걸기 완성	84
그림 72. 채활 손질	84
그림 73. 베짜기	85
그림 74. 잣물에 삶기	86
그림 75. 명주 말리기	87
그림 76. 다듬이질	87
그림 77. 13새 명주 비교	88
그림 78. 뽑기한 번데기	94
그림 79. 경주여자보통학교 누에교육	95
그림 80. 물레질하는 여인	96
그림 81. 여자산업 견습생 잠업실습	97
그림 82. 베틀축제	99
그림 83. 조선향견지색채시험	102
그림 84. 명주 전시관 상품	102
그림 85. 손명주 제품 개발	102
그림 86. 손명주와 천연염색	102

1. 머리말

1. 문제제기

명주는 명나라에서 직조한 견직물을 일컫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견사를 사용하여 직조한 것을 말한다.¹⁾ 섬유는 인류와 더불어 의생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역사와 함께 걸어 왔다. 그 중에서도 명주가 가장 으뜸 직물로 인류의 사랑을 받아왔다.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²⁾에서는 그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명주를 짜는 명맥을 오늘날까지 이어 오고 있다. 명주를 직조하는 여러 과정에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 있으며, 조상들의 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기계화와 경제성에 밀려나 전통적인 명주 직조 기술이 쇠퇴하게 되어 보존 및 보호하지 않으면 소멸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명주 생산은 인류와 더불어 마을마다 보편적으로 제직이 행해지던 제직문화이고, 두산명주는 전통명주의 맥을 이어오는 전국 유일의 손명주 마을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 및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산리의 전통적인 손명주 제직법에 대한 문화적 원형탐색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승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역사, 예술적가치가 큰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책, 고문서등 형체가 있는 문화적 유산인 유형문화재와 원형보존이 필요한 연극, 무용, 음악, 공예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형체가 없는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 그리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무형문화재로 구분되고 있다.³⁾ 무형문화재는 사람이고 또 민중과 운명을 같이 하는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변화의 속성을 가졌다. 원형이 보

1) 두산백과, 『명주』, 2016.

2) 이하 두산리라 한다.

3) 한국어 위키백과, 『무형문화재』, 국어사전, 2012.

존되어 있는 유형문화재처럼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형문화재는 시간적 공간적 문화형태이기 때문에 사라질 염려가 많다. 마찬가지로 경북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두산리 손명주를 짜는 제직기술은 모두 고령의 노인들에 의해 전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명주의 전통과 관련하여서는 삼한시대부터 누에를 쳐 명주를 길쌈했던 사실이 『三國志』와 『三國史記』와 같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 고대사회에서 상류층이 명주나 비단을 의복재료로 사용하면서 명주 길쌈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명주 길쌈은 삼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고, 고려시대에서는 주(紬) 또는 면주(綿紬)로 계승되어 가내 수공업으로 발전했다. 삼한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명주의 제직기술은 오늘날 두산리 손명주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길쌈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고대사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두산명주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두산리 손명주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두산리 명주 직제기술의 역사적 정통성이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과 전승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네스코의 조약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존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하겠다. 두산리 전통명주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방안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으로 향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예술 및 역사적 가치가 크며, 또한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들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전승계보가 확실하고, 제작기법이 전통적이어야 하며 전통적인 제작 도구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에도 제작 공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⁵⁾.

두산리 손명주 짜기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2011년 단체지정 신청을 했었으나, 단체의 역사성이 짧고 전승활동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산리 명주가 문헌연구

4)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 鮮卑 東夷傳 第30, 韓傳.

5) 문화재청, 『한국 무형문화재 보호법』, 2013.

를 통해 밝힌 역사성과 정통성을 토대로 보존과 전승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명주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지역문화의 뿌리이자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명주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명주 직제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991년부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명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한 전통계승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명주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방안으로 전통직제 기술의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전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두산리 전통명주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과 전승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명주와 관련된 유물과 문헌연구를 통해 두산리 전통명주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두산리 전통명주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문헌연구를 통해 두산리 전통명주가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교육과 관광자원, 산업화를 통해 전승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명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인 직제 기술로 명주를 생산해 오고 있다. 이 전통명주가 역사적으로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산업화와 국제교역에 의해 경제성이 상실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두산리 전통명주는 경제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보존과 전승이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는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특히 두산리 명주는 신라명주로 2012-2013년 문화재복원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조선왕조실록』 복제 본 표장 복원을 위해 채택된 사실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 일부인 단종3책, 세조32책, 예종2책, 성종60책 등 총 97책의 복제 본에 표장하기 위해 전통베틀에서 직조한 13새 명주를 2012년 10월, 2013년 10월을 사용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⁶⁾.

두산리 전통명주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방법으로 직제가 이루어졌고, 전통적 직제 기술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하고, 보존과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관광자원 및 산업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명주와 관련된 유물과 문헌 탐색을 통해 두산리 명주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두산리 전통명주가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탐색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두산리 전통명주가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교육방법, 관광자원 및 산업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6)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다해미디어, 2013, p. 112.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명주에 관한 관련문헌을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에서 현장조사와 실제 직조를 수행하면서 명주짜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집했다. 또 지역은 다르지만 명주 직조와 관련된 문화와의 상사성과 상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장이 있었던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 명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명주의 무형문화재지정의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두산리 손명주의 계승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명주와 관련된 유물과 문헌 탐색을 원문인용을 살펴며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두산리 명주의 전통계승을 살핀 후 제직공정을 관찰하고 이를 기산풍속도(箕山風俗圖)와 옛 사진을 통해 본 두산명주의 정통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⁷⁾

셋째, 전통명주로서 두산명주의 가치를 살핀 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안을 살펴본다.

넷째, 두산명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명주의 역사는 선사시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재의 상황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원문을 인용한 명주의 변천사를 알기 쉽도록 조사하였다.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명주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 명주의

7) 김준근,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09, p. 29.

상사성과 상이성의 비교를 위해 현지방문을 통해 관찰하였고 두산리 직조법을 직접 수행해 가며 조사했다. 두산리 마을 명주 조사를 위하여 현지방문을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김영자(1930년생), 최복출(1931년생), 이수봉(1928년생) 할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전통의 이어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 마을은 2011년 봄, 2012년 여름, 2013년 가을, 세 번 현지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두 곳을 비교하며 명주짜기 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산명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관련문헌을 탐독 조사하였다.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 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모시짜기 직물축제인 한산모시 축제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2012년 6월, 2013년 6월, 각각 현지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활용방안에 관한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방향제시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II. 우리나라 명주(明紬)의 역사

명주의 역사를 살피는 과정에서 한국 생산물 기원신화 가운데 직물신의 전승에 자청비(紫淸妃)라는 직물신이 있다. 자청비(紫淸妃)는 천상계로 떠나간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하늘에 비단을 짜다 바치는 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어 비단을 짜는 작업을 수행한다.⁸⁾ 방직을 여성이 창조한 고유한 천직예술이라 간주하고 직물에 관한 신화는 모두 여성 중심이라고 말하였으며 그 여신을 직물신이라고 불렀다.⁹⁾

우리나라 제주도 세경본풀이의 농경신화¹⁰⁾에도 오곡을 가져다주는 자청비가 수행하는 일에는 비단을 짜는 것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초기 인류문화는 자연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의식주의 하나로 여성들이 비단을 짠 것이라고 본다.

원래 명주(明紬, silk fabrics)는 누에고치를 삶은 후 젖가락으로 저어 고치에서 풀린 실을 물레에 묶어 생사(生絲)를 얻은 후 고치실을 말려서 실타래를 만들어 베틀로 짠 직물이다. 주(紬)의 일종으로 너비가 좁은 평직물인데 백(帛) 또는 (絹)이라 한다. 명주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금(錦): 채색된 실로 여러 가지 무늬와 문양을 넣어 두껍게 짠 비단으로 꽃을 크게 그림으로 넣어 짠 대화어아금, 소화어아금, 조하금등이 있다.

사(紗):얇고 가벼운 silk로 여름철에 입는 비단 즉 생명주다.

릉(綾): 여러 모양의 지문(地紋)을 넣어 짠 견직물이다.

단(緞): 능직으로 짠 비단의 견직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금(錦)은 금(金)이다. 비단은 금과 같다고 서역인 들이 선망했던 견직물이다.¹¹⁾

『三國志』 위서동이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누에를 쳐 명주를 길쌈한 것이 이미 삼한시대부터 일반화되었다. 상류층이 명주나 비단을 의복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명주를 길쌈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으며, 이것이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서는 주

8) 이지영, 「직물신의 전승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구비문학연구』, 14권, 2002, p. 282.

9) 손진태, 『신화상에서 본 고대의 여성관』, 손진태전집 6권, 대학사, 1981, pp. 269~271.

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2』, 민속원, 2006, p. 17.

11) 문경현, 『한국고대의복 소재의 염색디자인 지식』,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03, pp. 59-64.

(紬) 또는 면주(綿紬)로 계승되어 가내 수공업으로 발전했다. 또 상류층이 중국산 비단을 서로 교류하여 의복재료로 사용하면서 섬세하고 단아한 우리 민족의 정서가 제직기술에 반영되어 비단 직조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선사시대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의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마을 명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명주의 현존 역사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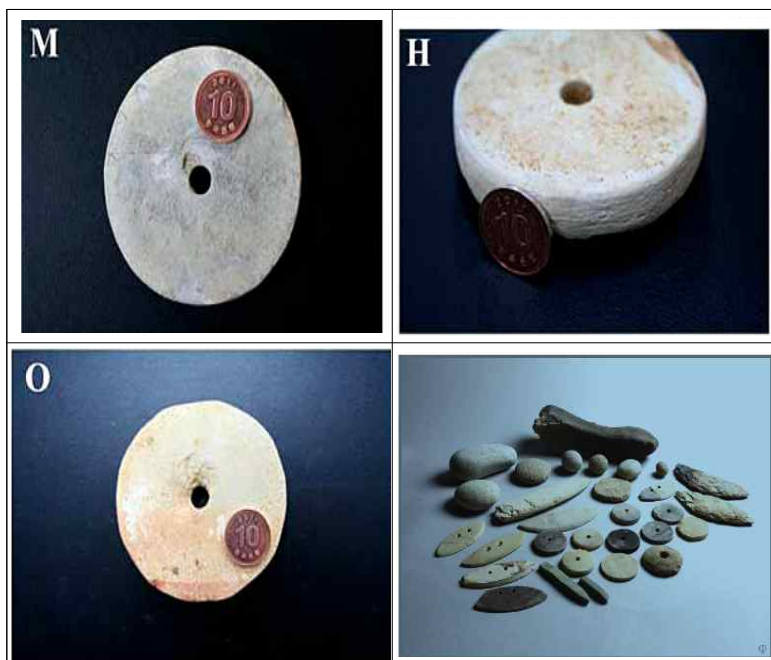
1. 선사시대

우리나라에서 직물(織物)을 생산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게 기록한 자료는 없다. 방추차 유물이나 발굴되는 직물 조각 등으로 실을 만들고 제직을 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로 평안남도 온천군 궁산리 신석기 시대의 집터에서 나온 빠로 만든 바늘에 꿰어진 삼실베가 유적에서 나왔다. 또 다른 출토품으로 가락바퀴 추(錘) 즉, 방추차가 나왔는데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에서도 나왔다.¹²⁾ 실제로 방추차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로 편년되는 유적에서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으며 청동기 시대의 수혈주거지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출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 35~1번지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대량으로 발굴되었다.¹³⁾ 그 곳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석기 및 토기가 발굴되었는데 이곳에서 다수의 방추차가 수거되었다. <그림 1>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 짧은 섬유의 경우는 섬유를 길게 이으며 뒤 꼬임을 주어 실을 만들고, 긴 섬유의 경우는 꼬임만을 주어 실을 만드는 방적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다.

13) (재) 신라문화유산 연구원, 『경주 신월성 직원사택 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p. 28.



〈그림 1〉 방추차, 청동기시대,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제) 신라문화유산 연구원, 『경주 신월성 직원사택 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p. 28.

이러하듯 섬유를 꼬아 실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방추차들의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된 것으로 보아 실을 뽑아서 천을 직조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두산리 마을과 접한 어일리에서 청동기시대 방추차가 발굴된 것은 이 지역에서 청동기시대부터 무슨 직물인지는 직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을 뽑아서 제직하여 의복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원후 3세기에는 확실히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명주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아래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第30 弁辰)

변진한(弁辰韓)은 24국이 있다. 큰 나라는 4~5천 家요 작은 나라는 6~7백 家다. 총 합쳐 4~5만 戶다. 토지는 비옥하여 오곡(五穀)과 벼를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견(縑:합사비단)과 베를 짤 줄 알았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고 부릴 줄 알았다.¹⁴⁾

농경이 시작되며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그 실로 제직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생명주를 짜서 의복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아래의 기록을 보면 삼한 특히 변한에서는 직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다수의 과장이 있다고 보이지만 명주 제작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이다.

至王莽地皇時 廉斯鏹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鏹曰我當降漢 樂浪 汝欲去不 戶來曰 辰鏹因將戶來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卽以鏹爲譯 從 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鏹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五百人已死 我當出 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鏹收取直還 郡表鏹功義 賜冠嬰 田宅 子孫數世(『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第30 辰韓)

왕망의 지황에 이르러 진한(辰韓)의 염사착(廉斯鏹)은 우거수(右渠帥)가 되었다. 낙랑군(樂浪郡)의 토지가 비옥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하고 안락하다는 소리를 듣고 투항하러 가는 길에 들에서 새를 쫓는 한 사내를 만났다. 말씨가 진한의 사람이 아니었다. 물어보니 남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한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호래(戶來)라 한다. 우리들 동료 천오백명이 임목(林木)을 벌채하다가 진한의 습격을 받고 1,500명이 포로가 되어 머리를 깎이고 노예가 되어 3년간이나 혹사당하고 있다. 염사착이 나는 낙랑으로 투항 하러 가는데 자네도 같이 가겠는가 하니 호래도 같이 가겠다 하였다. 이에 염사착은 호래를 데리고 함자현에 갔다. 현(縣)에서 낙랑군(樂浪郡)에 보고하여 큰 배를 타고 진한(辰韓)에 들어가서 포로를 내 놓으라고 했다. 내 놓지 않으면 낙랑이 1만 대군으로 배를 타고 쳐 들어오리라고 위협했다. 진한(辰韓)은 1,000명을 내 놓으면서 500명은 죽였다. 그 수만큼 배상하겠다고 하였다. 그 값으로 15,000필의 한포(韓布)를 배상으로 내어 놓았다. 염사착(廉斯鏹)은 막대한 량(良)의 한포(韓布)를 거두어 낙랑군(樂浪郡)에 돌아갔으며 낙랑군은 염사착의 공을 표하여 옷과 밭과 집을 주며 자손수대에 걸쳐 내리게 했다.¹⁵⁾

14)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第30, 韓.

15)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 鮮卑 東夷傳, 第30, 韓(弁辰).

이를 볼 때 명주 15,000필은 엄청난 수량으로 양잠생산기술과 제직기술은 고도로 발달했으리라 짐작되며 엄청난 많은 여인들이 제직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한(辰韓)사람들은 겐포(縑布)의 제직기술이 뛰어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의복의 차림새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의 고구려 고분벽화이다.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직물 제직기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기록된 직물 및 벽화를 통해 제직기술이 발달되어 세포(細布)가 대량으로 생산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이와 관련된 문헌의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고구려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비교적 가까이 위치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일찍부터 양질의 의복을 생산했던 것으로 본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다양한 의복을 통해 제직기술의 뛰어남을 추측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문헌에 보이는 기록을 참고하여 고구려 직물의 품속 및 제직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高麗記云 其人亦造錦 紫地縑文者爲上 次有五色錦. 次有雲布錦 又造白疊布 青布而尤佳 又造郭日 華言接籬(『翰苑』 蕃夷部 高句麗)

고구려 사람들은 금錦(무늬를 넣어 짠 견직물)을 짓는데, 보라빛 바탕에 무늬가 놓인 자지힐문금을 으뜸으로 치고 다음으로 오색빛갈금(五色錦)이며 그 다음은 구름무늬금(雲布錦)을 꼽는다. 또한 흰 모시 백첩포(白疊布), 푸른 모시청포(靑布)를 짓는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¹⁶⁾

이것으로 보아 오색무늬를 넣어 짠 수준 높은 비단 제직기술을 추측하며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아도 귀족들은 의복으로 찬란한 비단옷을 입었다

16) 『翰苑』, 蕃夷部, 高句麗.

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하호계급의 사람들이 지배계급을 위해 일을 많이 한 것을 아래에서 알 수 있다.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節食好治宮室

(『三國志』 魏書 東夷傳 第30 高句麗)

나라의 대가 즉 지배계급은 경작을 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고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일만이 넘었다. 하호들이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궁에 공급했다.¹⁷⁾

이것으로 보아 이들 하호 즉 피지배계급들이 경작을 하며 직조활동을 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第30 高句麗)

고구려는 혼인 풍속으로는 말로써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큰집 뒤에 작은 집을 지어 서옥이라 한다. 사위될 사람이 여자의 집 대문 밖에서 신분을 밝히며 엎드려 절한 후 여자와 하룻밤 자기를 두세 번 청한다. 여자의 부모가 허락하여 작은 집에서 잠잘 수 있게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돈과 비단을 내 놓는다. 아들을 낳아 장성하면 부인과 집으로 돌아오는데 풍속은 음란하다. 남녀가 결혼하면 죽어서 입을 수의 옷을 만든다. 장례는 후하게 하는데 죽은 자에게 금, 은과 폐백 등 재물을 함께 넣어 묻는 풍습이 있다.¹⁸⁾

고구려 왕조에서는 일반백성들은 혼례와 같이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비단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풍속으로 비단을 지참한 것으로 보아 비단을 생산하는 가내 수공업은 더욱 발전했다고 본다. 또한 죽은 사람을 위해 수의를 준비한 것은 요즘 두산리 비단이 수의용으로 판매되는 풍습과 일치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

17)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第30, 高句麗.

18)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第30, 高句麗.

사람은 세금으로 한 사람 당 포(布) 5필과 곡식 5섬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쳤다. 놀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3년에 한사람 세를 바쳤고, 10명의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하여 세포 1필을 바쳤다.¹⁹⁾

10명의 사람이 공동작업(共同作業)하여 세포(絹布) 1필을 세(稅)로 바치게 한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며 그 당시에든 많은 일손이 필요한 직조 작업을 공동으로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王服五采絹 以白羅制冠 革帶皆金扣 大臣青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扣 衫筒袖 褲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幘.

(『舊唐書』 卷199 列傳 149 東夷 高麗)

고구려 왕은 오색 비단 옷을 입고 백라(白羅)로 만든 관(冠)을 쓰고 허리띠는 금칠을 했다. 대신들은 청라관(靑羅冠), 그 다음 계급은 강라관(絳羅冠) 즉 진홍색의 관을 썼다. 양쪽 귀 곁의 관에 새의 깃털을 꽂고 금과 은을 섞어 테두리를 했다.²⁰⁾

이것으로 보아 오색비단을 직조했으며 또한 고구려시대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무용총, 사신총 등에서 확인된 벽화로 보아 고구려는 직조술과 염색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덴뵈(天平 729~749)년간에 일본에 고려금(高麗錦)이 수출된 증거로 일본 동대사(東大寺) 정창원(正倉院)의 헌물장(獻物狀)에 고려금(高麗錦)이 있다. 이것은 신라금(新羅錦)이나 고려금(高麗錦)의 우수성이 알려져 일본에 많이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로부터 염색기술(染色技術) 염직공(染織工)이 계속 일본에 건너가 일본에서 활약하고 한반도의 비단을 고려금(高麗錦)이라 칭하게 되었고 당시 신라금(新羅錦)도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비단 직조 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19) 『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

20)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東夷, 高麗.

(2) 백제

백제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제작하여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보인다. 백제(百濟)는 남쪽으로 신라에 접하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떨어져 있으며 서쪽은 큰 바다를 한계로 하였다. 백제는 다양한 색깔의 관복을 입게 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 二十八年春正月初吉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韋履 坐南堂聽事

(『三國史記』 卷24 百濟本記 第二 古尔王 27년)

고이왕 27년 2월에 명령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주색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게 하였으며 11품 이상은 비색 옷을 입게 하고 16품 이상은 푸른색 옷을 입게 하였다. 28년 초 정월 길일에 왕이 자대수포와 청금고 금화식오라관 흰가죽 띠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 정사를 보았다.²¹⁾

이것으로 보아 국왕(國王)과 관인(官人)들은 모두 비단옷을 입었다. 서민(庶民)들은 비색(緋色)이나 자색(紫色)의 비단옷을 입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인(官人)들의 복식(服飾)은 자복(紫服)은 6품 이상이 입었으며 비복(緋服)은 11품이상 그리고 청복(靑服)은 16품 이상만 입은 것으로 보았을 때 자금(紫錦) 비금(緋錦) 청금(靑錦)의 상당한 고급비단을 직조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백제의 풍습은 아래와 같다.

賦稅以布絹麻米等 婚娶之禮略同華俗 父母及夫死者 三年持服

(『通典』 卷185 邊防1 東夷上 百濟)

백제의 사람들은 부세(賦稅)로 마(麻) 견(絹) 포(布)와 쌀을 국가에 바쳤다. 혼인 풍습 예절은 중국의 풍속과 비슷하였다. 부모와 지아비가 죽으면 3년 복을 입었다. ²²⁾

위의 내용을 볼 때 부세로 명주를 바친 것은 명주의 수량이 엄청난 것으로 고급비단 직조기술은 뛰어 났을 것으로 본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2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記, 第二, 古尔王 27년.

22) 『通典』, 卷185, 邊防1, 東夷上, 百濟.

고도로 발달한 염색기술과 비단 직조기술로 고급비단을 짤 것으로 본다. 염색기술이 발달 할수록 비단 제직 공정은 까다롭다. 그만큼 무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3) 신라 및 통일신라

신라에서도 일찍부터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내용은 제시한 『삼국지』의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土地肥美宜植五穀 多桑麻作縑布 服牛乘馬 男女有別
(『梁書』卷54 列傳 第48 諸夷 新羅)

신라는 토지가 비옥해서 오곡을 심기에 알맞으며 뽕나무와 삼이 많아 겹포를 만든다. 소를 부리고 말을 타며 남녀의 구별이 있다.²³⁾

이것을 볼 때 자연 친화적 생활에서 인위적으로 뽕나무를 심고 누에치기를 했으리라 본다. 토지가 비옥해야 뽕나무가 잘 자라고 누에고치가 단단하여 실이 질기고 윤이 난다.

신라시대 경주의 기후상황을 잘 알 수 없지만 근래의 것을 참고하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주시는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며, 내륙지역은 2013년 연평균기온이 14℃, 1월 평균기온이 -0.3℃, 8월 평균기온이 26.6℃이고, 연평균강수량은 998.2mm이다. 춥고 더운 차이가 심하고 강수량이 적은 남부 내륙형 기후를 보인다. 해안지역은 동해의 영향을 받아 연평균기온 13.3℃, 1월 평균기온 0.6℃, 8월 평균기온 25℃, 강수량 1,028.6mm로, 따뜻하고 습한 남부 해안성 기후를 보인다.²⁴⁾

명주를 제직하는데 있어 기후가 따뜻하면 실이 잘 끊어지지 않고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아 보풀이 덜 생긴다. 신라는 베를 짜기에 가장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 『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의 풍속들 중의 하나로 길쌈을 하는 큰 행사가 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王既定六部 中分爲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既望 每日早

23) 『梁書』, 卷54, 列傳, 第48, 諸夷, 新羅.

24) 경주시 기후 통계, daum. edunet. net. 선생님의 교육콘텐츠.

集大六部之庭續麻 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小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歌舞百戲皆作 謂之嘉俳 是時 負家一女子 起舞嘆曰 會蘇 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而作歌 名會蘇曲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9年條)

신라(新羅)왕이 육부(六部)를 정하였다. 두 편으로 똑같이 나누어 왕녀 두 사람이 부내의 여자들을 나누어 편을 가르고 조를 짰다. 가을 칠월 열엿새부터 날마다 일찍 육부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여 밤 열 시경에 그만두게 하였다. 8월 보름에 이르러 실력의 공과를 따져 지는 편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내 놓았다.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가 이어지고 이를 가배(嘉俳)라 하였다. 한 여자가 일어나 춤추며 탄식하기를 회소! 회소! 하면서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 노래가 구슬프고 아름다워 후에 회소곡으로 이름 지었다. 그날이 한가위의 기원이 되었다.²⁵⁾

신라시대의 길쌈도 공동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유리 이사금 왕 당시, 6부의 여성들이 길쌈대회를 한 것이 공동 명주짜기 작업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부녀자들이 한 달 간 하루종일 함께 길쌈을 한 것으로 보아 이 행사는 여성들의 직조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겠다. 『三國遺事』에는 비단의 신령스러움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第八阿達羅王卽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烏郎 細烏女 夫婦而居 一日 延烏歸海採藻 忽有一巖一云一魚 負歸日本 國人見之曰此非常人也 乃立爲王日本帝 前後無新羅人爲王者 此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 細烏怪夫不來 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貴.是時 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烏曰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有所織細綃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綃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綃於御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又都祈野

(『三國遺事』 延烏郎 細烏女 卷1 紀異 第1)

제8대 아달라왕 즉위 4년 정유년, 동해 해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랑이 바닷가에 나가 미역을 따는데 갑자기 웬 바윗돌(혹은 고기)이 나타나서 연오랑을 태우고 일본으로 갔다. 일본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이는 비상한 인물이다.” 하고 건져 올려 왕으로 삼았다. 전이나 후나 신라 사람으로 왕이 된 자가 없다. 이는 변방 고을의 작은 왕이니 제대로 된 왕은 아니다.

2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5年條.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겨 나가서 찾아다니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바위 위에 올라갔더니 이전처럼 바윗돌이 그녀를 태우고 갔다. 그것을 본 그 나라 사람들이 놀랍고 기이하여 왕에게 아뢰어 바쳤더니, 부부가 서로 만났고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의 빛이 없어지며, 일관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던 해와 달의 정기가 지금은 일본으로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괴변이 생겼습니다.”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두 사람을 오라고 했더니, 연오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다.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으랴. 나의 왕비가 짝 세초(細稍, 생사로 얇게 짠 비단)가 있으니,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다.” 하고 그 생초를 주었다. 사신이 신라로 돌아와 연오의 말을 전하고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빛을 되찾게 되었다. 그 고방을 귀비(貴妃, 세오를 지칭함) 고방이라 하고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이라 하였으며, 또 도기야라고도 했다.²⁶⁾

그 생초비단을 어고(御庫)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이 어고를 귀비고(貴妃庫)라는 기록이 있어 귀비고는 직물박물관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있는 포항시는 영일군 도구해수욕장 부근에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 공원을 추진 중에 있어 비단에 대해 재조명 해 볼 수 있는 기회라 본다.

중국의 『위식예기집설(衛湜禮記集說)』에 길복과 흥복으로 2종 제직(古者...紡績其布當有吉凶二種)하여 승수의 제한을 두어 15승 이상은 길복으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의료용직물(衣料用織物)의 승수 한계가 15승인 것을 감안하면 신라 평민의 허용 승수가 12~15승일 때 제직기술도 최고로 뛰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견직물은 왕과 대관들이 조공과 공물로 애용되었으니 그 제작기술은 더욱 높다 하겠다.

또한 신라는 당나라와 조공과 예물로 비단이 오고 갔음을 『三國史記』의 설명을 보고 알 수 있다.

伊瀆文王卒，以王子禮葬之。唐皇帝遣使來弔 兼進贈紫衣一襲 腰帶一條 彩綾羅一百匹 綃二百匹 王贈唐使者金帛尤厚。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5年條)

문무왕(文武王) 이찬(伊瀆) 문왕(文王)이 죽자 왕자의 예로 장례 지냈다. 당(唐)나라 황제가 조문사절(弔問使節)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겸하여 문무왕(文武王)에게 자의(紫衣)1습, 요대(腰帶) 1조와 함께 채릉라(彩綾羅) 100필, 초(綃)200필을

26) 『三國遺事』, 延鳥郎 細鳥女, 卷1, 紀異, 第1.

보내왔다. 이에 왕은 당나라 사신에게 금(金)과 비단(帛)을 더욱 후하게 주었다.²⁷⁾

신라와 당과의 교류로 비단이 오고 갔다. 이것으로 보아 비단 제직기술은 더욱 발달 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그때 보낸 비단이 지금 두산리 마을에서 생산된 비단이었는지 모른다. 또한 신라 문무왕 때 공물로 비단이 사용된 것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命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隣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 綾五匹 絹細布各十四 綿十五稱 王其領之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10年)

공을 명하여 고구려왕으로 삼으니 공은 마땅히 유민을 모아 옛 왕통을 일으켜 이웃 나라가 되어 형제처럼 할 것이며 공경하고 또 공경하라. 겸하여 벼 이천석을 보낸다. 무장한 말 한필, 무늬비단인 능라 5필, 견과 세포 각 10필, 면 15칭, 왕은 영을 받으라.²⁸⁾

이 시대에는 비단이 오늘날 말하는 특산품으로 조공과 공물로 꼭 들어가는 품목이다. 그만큼 가치가 높았다 본다. 지금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전통계승을 해야 하는 이유다. 신라시대에는 인피용 직물로 마와 모시 및 면 등의 30승 저삼단(紵衫緞), 30종포(綜布), 40종포(綜布) 등 극도로 섬세한 직물 등도 제직되었다.

통일신라는 풍부한 농산물의 생산으로 주변 국가와 조공과 공물로 비단을 서로 주고받으며 국력을 키워 7세기 중반에 한반도를 통일하여 단일민족(單一民族)으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되었다.

『三國史記』에서 통일신라시대에서 사용한 것으로 색견(色絹), 생견(生絹), 견세포(絹細布) 등을 기록하고 있어 명주의 충칭이었을 것이다. 비단의 직조에 있어 금실을 섞어 짜는 것을 직금(織金)이라 하며, 색깔을 섞어 짜는 것을 직색(織色)이라 한다. 모양을 넣어 짜는 것을 직문(織紋)이라 한다. 신라 혜공왕 때 아주 섬세한 직물중의 직물인 어아주(魚牙紬)와 조하주(朝霞紬)가 당나라에 보내진 기록이 있다.

27)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5年.

28)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第6, 文武王 10年.

遣使如唐賀正 獻金銀朱黃 魚牙紬 朝霞紬等方物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第9 惠恭王 9年條)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신년을 하례하고 금과 은 그리고 붉은 우황을 드렸다. 어아주 그리고 조하주 등을 방물로 드렸다.²⁹⁾

조하주와 어아주는 우리나라의 특산 중에 특산으로 섬세함과 단아함을 미의 극치로 본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직물로 본다. 섬세 제직 손기술이 우수하였던 우리민족에게 적합한 견직물로 보았다. 우수한 직물의 우열은 승수와 섬세 제직 기술로 구별된다.

일본 동대사(東大寺) 정창원(正倉院)에서 통일신라시대 서원경이 있었던 청주 인근의 마을에 대한 통계조사인 신라 장적이 발견되었다. 이 장적의 내용에는 마을 사람들을 연령별로 나누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 말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

특히 家戶마다 가지고 있던 뽕나무의 수를 헤아려 둔 것이 주목된다.

신라 촌락 문서에서 뽕을 마을 단위로 재배했다는 것은 직조의 원재료인 뽕밭 가꾸기와 누에치기를 공동 작업 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신라 촌락 문서나 단양 적성비에서 여성인구를 연령 등급별로 파악했던 까닭은 이러한 직조활동 과정에서 노력을 부담시키고 직조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³⁰⁾ 이것으로 보아 여성의 노동은 직조의 원료확보를 위한 뽕나무 재배나 직조 분야 등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와 같이 많은 노동력을 확보한 신라의 여성들이 섬세 직물인 신라의 조하주 어아주를 제직하였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당나라에 보내는 공물의 목록이다.

遣使人唐獻果下馬一匹 牛黃人蔘美髮朝霞紬魚牙紬 鏤鷹鈴海豹皮金銀等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2年條)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과하마 한필과 우황, 인삼, 아름다운 머리카락, 조하주, 어아주, 매를 아로새긴 방울, 바다표범가죽, 금과 은 등을 바쳤다.³¹⁾

29)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第9, 惠恭王 9年條.

30) 김정숙 『신라시대 여성의 직조활동과 관직진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31)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2年條.

기후조건과 토질이 좋은 신라에서 비단중의 비단인 아름다운 조하주, 어아주가 생산된 것은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오늘날 두산리도 겨울보다는 여름에 직조를 많이 하고, 추운 겨울도 다른 지방보다 비교적 따뜻하므로 제직하기 좋은 환경이다. 당나라에서도 신라가 보낸 조공물품의 아름다움에 감사함을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玄宗降書曰卿每承正 朝貢闕庭言念所懷 深價嘉尚又得所進雜物等 亦踰越滄波跋涉草莽 物既精麗深表卿心 今賜卿錦袍 金帶及綵素共二千匹 以答誠獻至宜領也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3年條)

당나라 현종이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경은 매번 정삭을 받들고 궁궐 마당에 조공을 하니 마음속에 품은 뜻이 매우 가상하다. 여러 가지 바친 물건들을 보니 큰 바다의 파도를 건너고 거친 들판을 넘어 왔건만 물건들이 모두 정교하고 아름다워 경의 마음을 충분하게 깊이 드러내고 있다. 이제 경에게 비단 두루마기 솜옷과 금띠와 채색비단과 흰 비단(물들이지 않은 명주)을 합하여 2천 필을 보내어 정성스런 예물에 답하노니 잘 받으시오.³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신라는 아름다운 직조를 장려해왔다고 본다. 통일신라시대 관청 조하방(朝霞房)은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비단 등 직물생산을 담당하였다. 신라의 수출품으로 유명한 조하주(朝霞紬)는 그 명칭으로 보아 조하방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하방에는 모(母) 23명을 두어 조하금(朝霞錦)을 짜게 했고, 금전(錦典)에서는 모 14명이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을 짚으며, 기전(綺典)에서는 모 8명이 능직금의 일종인 기(綺)를 짚었다.³³⁾ 이와 같이 신라에서는 금을 짜던 관청이 그 기술적 차이에 의해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그곳에서 짠 조하금, 어아금 등은 중국에서도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여성들은 직조활동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소비하기 위함이나, 조세를 납부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유통을 목적으로도 직물도 생산했다고 본다. 오늘날 두산리 마을 처럼 가내 수공업으로 짠 직물을 내다 파는 여성도 있었다고 본다. 현재 신라의 옷감 현물로는 천마총에서 발굴된 평직주(平織紬)의 명주 천 조각인 직물과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 보관된 자초랑 모가 있다.

32)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23年條.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브리태니커백과사전.

3.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상류층이 중국산 명주나 비단을 수입하여 의복 재료로 사용하며 보급시킴으로서 전문을 넓혀 명주를 길쌈하는 기술이 발전하였다. 충숙왕 9년 원나라에서 고려에 직문저포(織紋紵布)를 구한 사실, 공민왕 3년에 문저포(紋紵布), 사저포(紗紵布), 포라(布羅)등의 화문(花紋)으로 제작된 섬세한 직물이 제작되었다.³⁴⁾

대구광역시 파계사 원통전의 관음보살상 복장물인 ‘영조대왕 도포와 발원문(중요민속문화재 220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금동아미타삼존불 등 주로 불복, 장물의 화려한 색상이 복장 형태로 발견되고 있어 고도의 기술로 직조된 명주의 가치를 추측할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대견(大絹), 중견(中絹), 소견(小絹), 비견(緋絹), 조건(皂絹), 청납견(靑蠟絹)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주(紬) 또는 면주(綿紬)로 계승되어 가내 수공업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에서도 비단을 짜는 잡직서와 염색을 담당하는 도염부를 두었다가 그 둘을 직염국으로 통합하고 잡직잡방이라는 직조공장을 두었다.

『잠상(蠶桑)』에 관한 주요한 기록을 살펴보면 현종 19년 정월에 여러 도의 주, 현으로 하여금 매년 뽕나무를 심게 하는데 정호(丁戶)는 20그루, 백정(白丁)은 15그루를 밭머리에 심어서 누에치는 일을 돕도록 하라고 하였다.³⁵⁾ 고려시대에는 서민들에게도 주(紬)와 견(絹)의 착용이 허용되었다.³⁶⁾

고려 고종 때 최자(崔滋 1188~1260)가 지은 삼도부(三都賦)에는 경주지역에서 활발하게 행해진 잠상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다.³⁷⁾

34) 『高麗史』, 卷二, 世家, 外, 冊府元, 卷970, 外臣部 朝貢五.

35) 『高麗史』, 食貨志, 農桑篇,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6, p. 264.

36) 조효숙, 『高麗時代의 絹織物과 그 製織에 관한 研究』, 第15號, 服飾, 1990, pp. 104~105.

37) 최자(崔滋, 1188년~1260년)는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 시인이다. 초명은 종유(宗裕) 안(安)이고, 자는 수덕(樹德), 호는 동산수(東山叟), 본관은 해주이다.

강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상주사록(尙州司祿)을 지냈고 급전도감(給田都監 1210~1220) 국자감학유때 문제를 인정받아 고종 때 사간원 정언을 거쳐 상주목사가 되었다. 고려시대 시가집 보완집(補閑集)이 그의 작품이다.

계림땅 좋은 고장에	鷄林永嘉	뽕나무는 크고 커서	桑柘莫莫
봄이면 누에치니	春而浴蠶	한집에 일만발이요	一戶萬箔
여름이면 실을 내니	夏而繰絲	한 손가락에 백 가닥이라	一指百給
뽑으면서 엮으면서	始繰而縫	명주를 짜내니라	紡織而綃
번개 같은 북 바람 같은 바디	雷梭風梯	손을 빼니 벼락이라	脫手霹靂
생명주 무늬 줄과	羅綃綾線	겹실을 엮은 양이	縑綃轉縠
내인 듯 안개인 듯 부드럽고	烟纖霧簿	눈인 듯 서리인 듯 희도	雪皓霜白
파랑노랑빨강초록 물을들여	靑黃之朱綠之	비단을 만들어 수를 놓아	爲綿綺爲繡縵
높으신데 옷을 짓고	公卿以衣	우리옷도 지어 입세	士女以服

이토록 최자(崔滋 1188~1260)의 삼도부(三都賦)는 계림 즉 오늘날 경주에서 잠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산리 명주의 정통성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고려시대에는 문저포(紋紵布), 사저포(紗紵布) 등 섬세문 직포가 제직되어 원나라에 조공품으로 보내졌으며 원나라로부터 문저포 사저포의 빈번한 요구를 받았다.³⁸⁾ 그러므로 명주 제직기술은 더욱 발달한 것으로 본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명주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문헌, 풍속화,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며 명주제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왕실차원에서 명주 길쌈을 권장하여 각 지방에 잠실(蠶室)을 설치하고, 종상법(種桑法) 즉 뽕나무의 종자법을 널리 알렸으며 관복으로 명주가 다양하게 이용된 것으로 본다.

1424년(세종6년) 11월 세종은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인 변계량(卞季良 1369~1430)에게 중국의 빈풍칠월도 및 무일도를 본떠 우리나라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생활을 담은 그림을 월령(月令)의 형식으로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³⁹⁾

9년뒤 세종은 다시 경연(經筵)에서 시경의 빈풍편을 모방하여 우리나라의 풍속을 바탕으로 한 조선식의 빈풍칠월도를 제작하라고 다음과 같이

38) 『三國史記』, 新羅本紀, 雜誌, 第二色服.

39) 『世宗實錄』, 세종(6년)11월, 국조보감, 卷5.

집현전에 지시하였다.⁴⁰⁾

내가 빈풍칠월도를 보고 농사짓는 일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 알게 되었다. 비록 궁중의 부녀들이라도 모두 누에치고 농사짓는 책을 읽었으니 빈풍에 모방하여 우리나라의 풍속을 채집하여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찬미하는 노래를 지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궁중에서도 부녀들이 누에를 치며 농사짓는 어려움을 알았다. 또한 일하는 모습의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알 수 있다.

조선전기 역대 왕들의 권잠정책(勸蠶政策)은 정종2년 선잠제(先蠶祭)를 지내어 양잠을 장려했다.⁴¹⁾ 선잠제는 뽕잎이 나기 시작하는 3월에 거행했다. 또 성종대(成宗代)8년인 1477년에는 친잠응행절목(親蠶應行節目)을 제정하여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친잠례를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여 양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후비들도 친잠례(親蠶禮)를 행하도록 했다.⁴²⁾ 그러나 『三國史記』 복식 금제 기록에서 표의(겉옷), 내의(속옷), 반비(조끼), 표상(겉치마), 고(바지), 복두(머리쓰개) 관(관), 요대(띠), 말(버선)등에 명주사용을 허용하는 품목으로 보아 의복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한 지배 계층에서는 복식 금제 기록에 의해 명주를 의복 안감으로 사용한 예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혼숫감이나 명절 복에 쓰였던 가장 호사스러운 옷감으로 애용되었다.

여러 차례 무늬직물 사치금령으로 금(錦)의 제직은 쇠퇴하였다. 복색 제도령으로 제직기술 또한 단순화되었다. 한일 강제조약 이전에는 농가에서 손으로 실을 뽑고 명주를 직접 짜는 가내수공업이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정세는 일본 산업자본의 침투로 산업기반이 무너지면서 식민지 수탈시대를 겪으며 제사시설의 개량과 기계생사의 생산을 위해 생사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⁴³⁾

영남 일대에서는 부녀자들의 작업으로 원근을 가리지 않고 각처에서 길

40)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1998, p. 125.

41) 『定宗實錄』, 卷3, 정종2년. 3월.

42) 『成宗實錄』, 卷77, 성종8년. 윤 2월.

43) 한국잠업사, 『대한잠사회』, 1989, p. 151.

쌈을 했다. 중종대의 권잠정책은 잠업을 농가의 부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관 주도의 잠실을 축소시키고 관사(官司)에서 사직(私織)으로의 상품 유통은 생산증대와 더불어 직조기술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당시 민간수공업에서 평직으로 짠 면주 외에 고급필단까지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⁴⁴⁾

임진왜란을 겪으며 길쌈은 퇴보를 하다 영조의 사치 금지 정책으로 궁중에서도 억제되고 가내공업에서도 고급 교직물(絞織物)생산은 쇠퇴를 했다. 조선 말기까지 주로 궁중과 지배계급을 위해 소량 생산되던 비단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과 일본 비단의 수입으로 거의 소멸되었다.

그 후 길쌈은 민가의 가내수공업으로 무명 모시 삼베 명주의 평직(씨와 날을 한 올씩 엮바꾸어 짜는) 길쌈을 했다.⁴⁵⁾ 이것으로 보아 관주도의 친잠정책은 쇠퇴를 거듭하다 소멸되었고 민간주도의 길쌈법이 오늘날까지 손명주로 이어지는 견직물이라 하겠다.

44) 『中宗實錄』, 卷20, 중종9년, 2월.

45) 김미자,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뿌리깊은 나무, 1990, p. 187.

Ⅲ. 두산명주의 정통성

명주(明紬)는 일반 옷감에서 수의용으로 환경과 생활에 적응해왔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거치며 전통적 방법의 수직제작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기계화 과정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관계로 가격경쟁에서 밀려나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경주 두산리 명주는 기계명주와 손명주의 차이에서 오는 비교 우월로 소수의 고급계층들이 찾는 수의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손명주의 전통을 이어왔다.

우리는 매우 곱고 부드러운 것을 흔히 비단결 같다고 한다. 비단은 사촌까지 따스다는 속담에도 나오듯이 두산리 명주 즉 비단은 섬유의 여왕으로 귀하게 사랑받는 천연섬유다. 비단은 안락함과 포근함이 어느 직물보다 좋으며 통기성이 우수해서 가볍고 촉감이 좋으며 가장 질긴 섬유이다.

경주 두산리 마을 신라 명주는 조선왕조실록의 표장에 채택될 만큼 지리적 환경적 기술면에서 우수한 품질을 전통계승하고 있다. 두산리 마을의 명주전통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1. 전통 명주의 특성

산과 들에 있는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백(帛)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짠 명주를 말하며 의복을 만드는 천을 포백(布帛) 또는 포견(布絹)이라 한다. 식물성섬유로 짠 것을 포(布)라 하고 동물성 섬유로 짠 것을 백(帛) 또는 견(絹)이라 한다.

두산리 명주는 아래에서처럼 전통명주의 특성을 이어받았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백증야(帛繒也)라 했으니 백(帛)은 명주이다. 『서호전(徐灝箋)』에는 백자지소지통명(帛者縑素之通名)이라 했는데 백은 명주(silk)를 통틀어 말하며 두 겹 실, 쌍사(雙絲) 또는 삼합사(三合絲)등으로 짜서 물들이지 않은 흰 명주를 말한다.⁴⁶⁾ 앞의 내용으로 보아 지금 현재의 물들이지 않은 생명주 익명주로 본다.

46) 문경현, 『한국고대의복 소재의 염색디자인 지식』,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03, pp. 58-59.

『후한서(後漢書)』의 화희등황후기(和熹鄧皇后紀) 백위검소야(帛謂縑素也)라 기록하고 있는데 흰 얇은 명주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볼 때 백(帛, silk)의 증(縐)이라 하겠다. 증포(縐布)와 증백(縐帛)은 견포(絹布)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綿(면)은 누에고치에서 얻은 푸숨을 말하며 깁(명주)을 의미한다. 면서(綿絮)는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실, 즉 견사(繭絲)를 의미하고 면주(綿紬)와 면주(縣綢)는 명주를 의미한다.⁴⁷⁾ 이와 같이 볼 때 오늘날 “명주(明紬)”라는 단어는 아마도 면주(綿紬, 縣綢)에서 유래되어 나온 말일 것이다. 광아(廣雅)에서 면주야(綿紬也)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면(縣)은 곧 紬(주)다 라는 뜻인데, 주(紬)는 굵은 명주(silk)실로 짠 명주를 의미한다. “누에푸숨” 가운데서 정세(精細)한 것이 면(綿)이고 거칠고 조잡(粗雜)한 것이 서(絮)이다.

면(綿)은 우리말로 명주 곧 silk를 의미한다.⁴⁸⁾ 면주(綿紬)는 누에고치로부터 뽑아낸 거칠고 굵은 실로 짠 백(帛)을 말하고, 주(綢)는 견직물의 통칭이다. 주단(綢緞)은 견직물 종류를 뜻하고 견포(絹布)와 주견(綢絹)은 명주를 의미한다. 금(錦)은 견의 문양직물이며 그 가격은 금가(金價)와 같았다. 고구려에서는 자지(紫地)에 흰문(纈文)한 금, 오색금, 운포금(雲布錦)을 제직하였다(高麗記云. 其人亦造錦. 紫地纈文者爲上. 次有五色錦.)⁴⁹⁾

신라에서는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 조하금(朝霞錦)을 당나라에 공물한 기록이 있다. (大花魚牙錦一十四 小花魚牙錦一十四 朝霞錦二十四)⁵⁰⁾

두산 명주는 무늬 없는 백(帛) 또는 견(絹)을 짜서 수의용으로 장날에 내다 팔며 명주가 꾸준히 직조되고 있다. 전통 손명주는 안락함과 포근함이 다른 어느 직물에 비 할 수 없이 좋으며 기계명주의 느낌과는 다르다. 명주의 부드러운 촉감과 그 광택은 금, 은박으로 장식된 직물이나 실보다 우수하며 기계명주의 촉감과 비교할 수 없다. 손명주는 아주 가볍고 통기성이 우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나 착용할 수 있다. 명주는 자신의 무게에 30%까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 내, 외부의 습기를 흡

47) 문경현, 『韓國古代衣服素材의 染色디자인 知識』,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03, pp. 58~59.

48) 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木棉中中綿辨證說, 1810경, 권16.

49) 『翰苑』, 蕃夷部, 高句麗.

50)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第11, 景文王 9年.

수하여 통기성이 우수하므로 인체의 위생에 가장 좋다. 기계명주보다 무거운 느낌이 난다. 또한 민간요법으로 “비단 속옷을 입으면 가려움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낮고 데인 상처에 명주를 태운 재를 기름에 개어 바르면 흉터가 없어져 많이 애용했다”고 한다.⁵¹⁾ 명주는 원하는 어떠한 색으로도 염색이 가능하며 천연염료의 색상이 아주 선명하게 채색되며 가장 질긴 섬유이다.

손명주의 스치는 아름다운 소리는 오직 손으로 짠 비단만이 지니고 있다. 명주는 각종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체의 냄새 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효과가 기계명주보다 높다. 손명주는 세계 총 섬유 생산량 중 얼마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섬유이다. 명주는 열 저항이 강하여 다림질을 바로 할 수 있고 화재 시 불이 쉽게 붙지 않아 화상 피해를 줄인다. 공기를 흡수하여 간직하며 소리를 잘 흡수하여 잡음을 감소시킨다. 우아한 광택, 부드러운 촉감 등으로 좋은 성질만을 모두 갖춘 섬유중의 뛰어난 본보기인 까닭에 예부터 “섬유의 여왕”이라 하였다.⁵²⁾ 이것이 전통 손명주의 장점이라 본다.

2. 전통명주로서의 두산명주 현황

경주역에서 동쪽 방면으로 35km쯤 떨어진 양북면 두산리는 사방이 산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斗山, 斗山里, 斗山으로 불렸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자연 마을 양지마을과 장아곡을 통합하여 두산리라 하고 경주군 양북면에 편입되었다. 두산리 양지마을은 해가 빨리 뜨고 종일 별이 드는 陽地라는 의미에서 양지마을로 이름을 붙였다한다. 또한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해지는 이양파(李陽坡)의 가운데 글자를 따왔다는 설도 있다.⁵³⁾

마을 앞, 들과 산에는 뽕나무가 많았고 이 마을 부녀자들은 마을이 형성된 조상대대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비단을 짰다. 두산마을에도 무명과 삼베로도 길쌈을 했는데 무명은 나일론의 화학섬유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삼베는 대마초 때문에 규제가 심해 자연 소멸되

51) 두산리 손명주 제작자 김영자, 최복출, 이수봉기술, 2010. 7.

52)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제공, 2012. 10.

53) 김제식, 김기문, 『경주풍물지리지』, 晉宇文化財團, 1991, p. 632.

었다.

두산리 마을에도 복식문화의 변화와 일손부족으로 길쌈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몇몇 사람들이 농약을 피해 산비탈에 뽕나무를 조금 심어 가족들의 옷을 해 입기 위해 길쌈을 했다. 옷을 해 입고 남은 명주를 양북면 어일리 5일마다(5/10) 장이 열리는 시장에 내다팔면서 손명주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고 주문생산이 이어졌다. 명주는 마을의 지리적 역사적 전통에 따라 할머니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길쌈을 했고 고급형 수의를 찾는 일부 부유층에 의해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었다.⁵⁴⁾

경주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통 직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1993년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지역으로 양북면 두산리 마을이 선정된 것이다.⁵⁵⁾ 1992년 일감 갖기 사업이 추진될 당시 명주씨는 할머니들과 그 자부들로 구성된 회원수는 최복출 할머니 등 37명이었다. 일 년 사이 고령으로 또는 자녀들의 만류로 직조 포기자가 5명이 생겨 32명(1993년)으로 출발했다.

농한기 직조 작업하는 할머니들의 일 년 평균 직조량은 1992년에는 260필이던 것이 1993년에는 170필로 절반정도 줄어들었다.⁵⁶⁾ 1993년에서 1996년까지 도비 400만원 시비 700만원 자비 300만원의 길쌈농가 재정지원으로 가구당 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솜씨가 좋은 8명은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전통명주마을 육성은 탄력을 받게 된다.⁵⁷⁾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손명주 씨는 두산리 명주마을은 유명세를 탔다.⁵⁸⁾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199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

관의 지원 없이 행해지는 농가의 농업위기의 해결은 농업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육성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농업정책도 경제정책의 하위 범위가 아니라 우선적인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⁵⁹⁾ 사업이 중단되고 관의 지원 없이 두산마을 자체적으로 할머

54) 두산리 손명주 제작자 최복출구술, 2012. 12.

55) 경주 농업기술센터 전통 손명주짜기 관련 소장자료.

56) 경주시 농정과 제공.

57)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참여자 현황, 경주농업기술센터 소장자료.

58) 2002년 한해 동안 누에 뽕 먹는 이야기(SBS모닝와이드), 하늘이 내린 실(KBS 한국의 미), 건강을 뽑아내는 벌레- 누에, (MBC 생생투데이).

니들에 의해 길쌈 전승을 이어가니 생산과정에서 경제적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침체되었다. 기계명주와 값이 저렴한 중국산 비단의 유통으로 명주 길쌈의 전승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경주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2년 농정과로 변경해 전통 손명주 육성 보존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993년 32명이었던 길쌈 보유자는 2001년 18명으로 줄어들었다.⁶⁰⁾ 경주시의 행정 경제적 지원으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를 보조하며 전승계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마을 인근 산골짜기에 뽕나무밭을 조성했다. 그래도 마을에서 생산하는 자체물량은 50%정도로 나머지는 영천 양잠협동조합 경주지부를 통하여 고치수매계약을 통하여 지원받아 길쌈을 했다.⁶¹⁾ 2002년 길쌈 할머니들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베틀 대신 강동면 모석골의 대목에게 의뢰하여 전통베틀을 그대로 재현한 새 베틀과 광채 등의 지원을 경주시로부터 받았다.⁶²⁾ 두산리 마을 이장과 길쌈 총무가 행정 사무를 도와주며 누에치기를 하고 새 베틀로 길쌈을 하며 농한기 부업으로 정통성을 이어갔다.

2007년 (재)신라염궁진흥원이 출범하여 두산리 손명주에 염색을 접목시키며 마을 밭에 쪽을 심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할머니들과 자부들은 경주시로부터 노임 지원을 받으며 길쌈을 하게 된다. 쪽을 따서 손명주에 천연염색을 하며 또 다시 마을 전체가 탄력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전통 손명주 생산 기술 전통계승발전을 위해 양북면 두산리의 부지 4071㎡에 명주전시관 400㎡, 명주작업관 160㎡, 명주염색관 220㎡, 한식골기와 3동을 건립해 2010년 10월 완공했다. 경주시는 전통과 기술을 이어가며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전시관을 짓고 각종 지원을 했다.

2009년 손명주전시관 건립과정과 신라염궁 진흥원이 운영부실로 두산리 마을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신라염궁 진흥원과 길쌈할머니들과의 사이에 노임 문제로 법정싸움을 하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까지도 서로 반목하게 된다.⁶³⁾ 좋지 않은 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행정적 사무를 보던

59) 김종덕, 『원조의 정치 경제학』, 경남대 출판부, 1997, p. 251.

60) 명주회원 김영자, 최복출, 강필래, 김귀순, 김봉선 김분순, 김수, 김정숙, 김정순, 김특교, 김화자, 박강수, 박원희, 이수봉, 정명희, 최해정, 허선이, 이순희.

61) 누에고치 약효 때문에 누에를 약용으로 판매하는 관계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원하는 고치의 량을 수급 받아 길쌈을 할 수 있다. 경주시 농정과제공, 2013. 5.

62) 경주시 농정과 제공, 2013. 5.

마을 사람들이 일을 그만 두면서 뽕밭면적도 줄어들고 침체의 길로 들어선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법정으로 불려 다니며 업무의욕이 격감된다.

불신에 불신이 쌓이면서 농정과에서 다시 2010년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행정장이 바뀌며 경주명주전시관은 개관도 못하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두산마을 농가를 설득하여 뽕밭조성을 하고 누에치기를 해야 했는데 두산리 마을에서는 뽕밭조성과 누에치기가 줄어들면서 경주시는 경주시 서면 도리마을에 뽕밭조성을 하게 된다. 경주시 서면 도리에 뽕밭 2,200평에 잠실 2동(30평, 20평)을 지원 신축하게 되었다. 누에치는 한 가구주의 농가로부터 누에고치를 계약 채배하여 전량 수매한다. 경주시는 수매가에서 길쌈농가에게 자부담 20%에서 40%로 증가시키며 공급해주니 길쌈농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노동력에 비해 원재료부담이 가중되어 수입이 적어지니 작업량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판로까지 불투명하니 지금은 젊은 농가는 기피하고 고령의 할머니들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길쌈을 하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⁶⁴⁾

매년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어놓은 명주전시관 <그림 2, 3, 4>에서 명주아카데미를 열어 기술을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비해 보인다. 경주시는 개관식도 하지 않은 명주전시관을 관리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 1명을 파견시켜 놓고 경주시 관광시티투어버스가 주 4회 전시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그런데 방문객들에게 명주 손수건과 누에고치를 무료로 나누어 주며 손명주 마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관광객은 전시관을 왔다가는 수준이다. 경주시에서 전승계승을 위한 행사나 실적이 전혀 없어 경주시민들과 경주시 의회에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⁶⁵⁾

윤달을 택하여 팔자 좋고 장수한 노인들이 모여 앉아 중간에 실을 잊지 않고 바느질을 하여 수의를 만들어 입혀 드렸는데 이것은 저승 갈 때 편안히 가기를 염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장례문화의 변화로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수의용 손명주 판로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길쌈 할머니들은 고령으로 돌아가시거나 몸이 아파 일손을 놓는 사람들이 늘어

63) 보조금 횡령의혹, 서라벌신문, 2009. 10. 26.

64) 두산리 최복출구술, 2013. 7.

65) 경주시 시의회 제공, 2013. 8.

나고 있어 길쌈 량도 제직자도 줄어들어 기술고문은 8명이 남아 있다.⁶⁶⁾

지금은 2001년 18명(김영자, 최복출, 강필래, 김귀순, 김봉선, 김분순, 김수, 김정숙, 김정순, 김특교, 김화자, 박수강, 박원희, 이수봉, 정명희, 최해정, 허선희, 이순희)에서 몸이 불편해서 그만둔 사람이 김영자, 강필래, 김정순, 김특교, 박수강, 박원희, 김봉선이고 사망한 사람이 김수, 정명희, 허선희이다. 2013년 손명주짜기 연구회 회원은 17명이다. 윗마을 송정리 길쌈할머니 5명(이궁자, 김이화, 김옥분, 이남두, 김두화)과 운영위원(김경자, 김해두, 이순희, 이정애)이다.⁶⁷⁾ 그런데 2013년 가을에 현지방문 조사에서는 최복출(1931년생), 김화자(1940년생), 이수봉(1928년생), 김귀순(1932년생), 김봉선(1941년생), 최해정(1946년생), 김분순(1938년생), 김해두(1961년생), 김옥분(1938년생), 이정애(1954년생), 김경자(1959년생), 동묵스님(1969년생)이상 12명이 길쌈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일 년에 가장 많이 짜는 사람이 김화자로 4~5필이며 나머지는 2~3필 짜며 협업으로 공동길쌈 하고 있다. 김봉선은 다리가 아파 거의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명주길쌈을 하는 기술고문은 7~8명이다.

경주시는 2012년 문화재청에 손명주 짜는 마을로 무형문화재 단체지정을 신청했는데 행정서류에서는 통과되었는데 현지실사에서 탈락했다.⁶⁸⁾ 관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베를 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공동 작업으로 결속력을 높이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전통계승이라는 자부심도 심어주었다. 지금은 다른 농업에 비해 경제성이 지원되지 않으면 손명주 길쌈의 전승계승은 어렵다. 베틀을 설치하는 것도 베를 짜서 판매하는 것도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행정에서 전통 문화계승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산모시나 안동포는 지역민의 호응 속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6) 명주짜는 할머니 최복출, 김화자, 이수봉, 김귀순, 최해정, 김분순, 이순희, 김정숙.

67)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제공, 2013. 8.

68) 경주시 문화재과 제공, 2013. 8.



〈그림 2〉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본관, 사진 한순희



〈그림3〉 명주체험관, 사진 한순희

〈그림4〉 명주염색관, 사진 한순희

(1) 두산명주와 관련된 노래들

베틀가는 여성의 베짜기와 관련하여 불린 길쌈노동요다.⁶⁹⁾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어우러진 터전이며 길쌈하는 여성의 애환을 함께 묶어 노래에 표현한 창작노래다. 두산리 마을 베틀가 또한 꿈과 현실의 고단함과 애잔함이 묻어있는 노래로 베를 짜는 여러 어른들 중에서 완창하시는 분은 이수봉 최복출 두 분이였으며 노래 말 속에 품은 뜻은 2종류였다.

하나는 과부가 베를 짜며 돌아가신 서방님을 기리며 눈물짓는 것으로 이수봉이 완창 했다. 다른 하나는 베를 짜서 입힌 서방님이 과거급제해서 마을로 돌아오는 경사스런 노래로, 최복출이 완창했다. 이수봉, 최복출은 각자 친정어머니로부터 노래를 배워 결혼해서 두산리로 정착하며 계속 불러왔다.

① 경주 두산마을 명주 베틀가노래

이 노래를 부른 이수봉은 양북면 와읍리 전주이씨 일문중대종손인 부이도희 모 김녕김씨와의 사이에 장녀로 태어났다. 어머니에게 15세에 명주짜기를 배워 노래 부르며 일하다 19살에 남편 김상문을 만나 두산마을로 시집을 왔다. 시어머니 구호댁으로부터 명주짜기법도 전수받았다. 옛날에는 누에를 많이 기를 수 없어 방에 줄을 매달아 놓고 한 해 두 해 실 뽑기 한 실을 줄에 실을 매달아 놓고 모아서 한필의 베를 짰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부모님 수의 옷을 직접 짠 베로 해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베를 짜서 팔아 자식들 공부 시키고 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주로 밤과 새벽에 길쌈을 했는데 평균 한 달에 두 필 베를 짜서 팔았다. 이수봉이 부른 베틀노래는 아래와 같다.⁷⁰⁾

월경에 놀던 선녀 천상에 죄를 짓고(달나라에 놀던 선녀 죄를 짓고)
지하에 내려서니 할 일이 전혀 없어(지상에 오니 할 일이 없어)
갈쌈 방적 배웠으나(베짜는 기술을 배웠으나)
길쌈 방적 할라하니 베틀 연장이 전혀 없네(베를 짜려니 베틀연장이 하

69) 조규익, 『베틀노래 研究 -辭說의 文學的 性格을 中心으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p. 37.

70) 이수봉 (시무택)완창, 2012. 11.

나도 없네)
 달가운데 계수나무 은도끼로 쫓아내어(달가운데 계수나무 은도끼로 베어내어)
 금도끼로 따듬어서(금도끼로 다듬어서)
 앞집의 박대모가 뒷집의 김대모가(앞집의 박목수. 뒷집의 김목수)
 우리 집에 와서 베틀 한 쌍 맛차 주소(우리집에 와서 베틀 한쌍 짜 주소)
 얼릉 똑딱 맞춘 베틀(빠른 속도로 만든 베틀)
 베틀이사 종구만은 베틀 놓을 때 전혀 없네
 (베틀은 좋은데 베틀 놓을 곳이 전혀없네)
 좌우산천을 살펴보니(좌, 우 산과 강을 둘러보니)
 옥난강이 비웠구나 (햇빛 잘 들고 장소가 아주 좋은 곳이 비워있네)
 베틀 놓자 베틀 놓자 옥난강에 베틀 놓자
 (베틀 놓자 베틀 놓자 햇빛 잘 드는 장소 좋은 곳에 베틀 놓자)
 앞 두 다리 높이 놓고 뒷 두 다리 낮게 놓고
 (앞 두 다리 높게 놓고, 뒷 두 다리 낮게 놓고)
 가리새를 질러놓고(베틀 중앙에 고정하는 직기를 고정시켜놓고)
 안친놀(안장대)을 돌게 놓고 그 위에 앉은 낭자(안장대는 조금 높여놓고
 그 위에 앉은 낭자)
 낭자 낭자 수낭자야 가삼을 반만 걷고(낭자 낭자 젊고 어여쁜 낭자야
 저고리 소매 만만 접고)
 하관을 숙여 놓고(얼굴 앞 턱을 숙여 놓고)
 옥자를 짜자하니 베박이야 치는 소리(좋은 비단을 짜려고 베바디 치는 소리)
 공단 비단 장단춤 열시 섬을 뛸단 듯고(공단비단이 길고 짧은 춤을
 주니 잘하는 듯 하다)
 부태야 두린양은 황화도야 두울 산에 허리 안에 두른듯다
 (허리에 두른 모습은 황화도 두울산이 허리에 두른듯하다)
 말깨야 차는 것은 물도 철도 사십매로
 (앞에 대나무에 베를 말아 허리에 차는 것은 땀방울 물이 흘러)
 배또 철로 외운듯다 (배에 물이 철철 두른듯하다)
 뱃 바디에 감긴 양은 삼대독자 외동아들 명과 복과 감긴 듯다
 (뱃 바디에 감긴 모습은 삼대독자 외동아들 명과 복이 감긴 듯 하다)
 저질래야(물뿌리개) 치는 것은 물이로다 뛰는 양은 도마 위에 고기로다
 (물뿌리개 치는 모양은 물이로다 뛰는 모양은 도마 위의 고기다)

.흐르는 것은 천년과수 눈물이요 홍양 홍양 뿌릴 런가
 (흐르는 것은 오랜 과부의 눈물이요 가끔씩 가끔씩 흘릴 것인가)
 북 나드는 지상어는 하늘의 홍액이라
 (북 드나드는 길은 하늘의 뜨거운 눈물이라)
 대홍강에 알을 품고 있는(대홍강에 알을 품고 있는)
 이에대야 삼형제는 견우직녀 상봉하는 지상이요
 (이에대야 삼형제는 견우직녀 상봉하는 모습이요)
 놀림대야 놀친양은 감태강의 낙수댄가 문수강에 잠긴 듯다.
 (놀림대야 누른 모습은 감태강의 낙수대가 문수강에 잠긴듯하다)
 비갸이야 고은양는 재알김이 유상대운 팔만군자 초패우네
 (비경이 세운모습은 재알김 유상대운 팔만선비 초패 우네)
 만인간을 흘친듯다 (베을을 흘친듯하다)
 꼬박꼬박 나부소는 낭자 앞에 술잔 들고 절하는 형국이요
 (꼬부랑하게 생긴나부소는 처녀 앞에 술잔들고 절하는 모습이요)
 절러굽은 신나무는 헌신짝에 목을 메어 오며가며 탄식하고
 (저절로 굽은 신나무는 헌 신발에 줄을 메달아 오며 가며 탄식하고)
 사치미는 둘 형제요 뱃대 똑똑 내리는 소리
 (사치미는 두 개인 것이 형제같고 뱃대 똑똑 떨어지는 소리)
 구시월 시단풍에 만천잎이 지는 듯다.
 (구시월 시들어가는 단풍에 만잎이 지는 듯하다)
 꾸벅꾸벅 용두마리 찌걱찌걱 우는 소리
 (꾸벅꾸벅 용두마리 찌걱찌걱 우는 소리)
 저 건너 친구 날 부르는 소리같다 (저 건너 친구 날 부르는 소리 같다)
 그리 그리 그 베 한틀 다 짜내어 (그럭저럭 그 베 한틀 다 짜내어)
 압눗강에 씻거다가 뒗눗강에 행그다가
 (앞냇물에 씻다가 뒗냇물에 행구다가)
 사로기고 장천밭에 줄줄이도 널어서
 (가로세로 길고 큰 밭에 줄줄이 걸어 말려)
 홍두깨로 옷을 입혀 방마치로 벼락마취
 (홍두깨에 베를 말아 다듬이 방망이로 잘 두드려)
 무슨 칼로 말강던고 뒗집 색시 채칼로 말강더라
 (무슨 칼로 마름질했던고 뒗집색시 음식하는 칼로 마름질했더라)

무슨실로 하였던고 당사실로 하였구나(무슨실로 하였던고 명주실로 하였구나)
 그리 그리 하여서 겔라하니 꾸겨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 모양내어 정돈하려하니 망가지고)
 겔라하니 먼지 앓고 대문앞에 썩 나서서 살구나무에 걸어놓고
 (걸어두려니 먼지 앓고 대문앞에 나가 살구나무에 걸어놓고)
 저기 가는 저 선비야 우리 선비 안 오던가
 (저기가는 선비야 우리선비(신랑) 안 오던가)
 오기사 온다마는 명전대는 어따 두고 칠성판이 윈 말인가
 (오기사 온다마는 만장기는 어디두고 칠성판이 윈 말인가)
 칠성판은 어따두고 쌍가마 얹혀왔다.
 (칠성판은 어디두고 영혼모신쌍가마 얹혀왔다)

② 경주 두산마을 명주 베틀가노래

이 노래를 부른 최복출은 아버지 최문조 어머니 김재희의 장녀로 양북면 봉길에서 태어났다. 친정어머니로부터 길쌈과 노래를 배웠다. <그림 5> 그 당시에는 길쌈을 하지 못하면 결혼을 할 때 중매가 들어오지 않았다. 양북면 두산마을로 19세 때 남편 이상국을 만나 시집왔다. 시할머니에게 길쌈법을 배운 시어머니 박 씨로부터 길쌈을 배우면서 양 가문의 길쌈법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베를 짜는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베를 짰는데 그 시대 처녀들은 17세면 길쌈법을 배웠다 한다. 특히 사도리와 이네오리는 부부같이 한집이며 한 구멍으로 같이 들어가야 명주가 가지런하게 발이 곱는 것이 최복출의 명주짜기 비법이다. 두산마을 가장 솜씨 좋은 명주제직 기술고문이다. 실 뿔을 때 가락을 작고 가늘게 뿔어야 발이 곱다. 2016년 여름에 사망했다. 최복출이 부른 베틀 노래는 아래와 같다.⁷¹⁾

월경에 노는 선녀 지상에 내려와서
 할 일이 전혀 없어 길쌈방적 배웠도다.
 길쌈 방적 할라하니 베틀 연장 전혀 없어

71) 최복출(봉길택)완창, 2012. 11.

사방으로 살펴보니 달가운데 계수나무
 동월벗은 상석가지 옥도끼로 작발하고
 (동쪽으로 뻗은 제일 좋은 가지 옥도끼로 베어내어)
 금 대패로 밀어내어 베틀 한 쌍 지었구나.
 베 틀 이사 있구마는 베틀 놓을 자리 전혀 없어
 사방을 둘러보니 옥난강이 비웠구나.
 베틀 놓자 베틀 놓자 옥란강에 베틀 놓자
 앞 두 다리 도다 놓고 뒷 두다리 낮게 놓고
 (앞 두다리 조금 높게 올리고 뒷 두다리 낮게 놓고)
 안친놀은 걸쳐놓고 가리새를 질러놓고
 (얹은 의자 걸쳐놓고 가리새를 가로질러 놓고)
 그 위에 앉진 선녀 얼굴도 묘하도다(그 위에 앉은 선녀 얼굴이 이쁘다)
 부태야(허리에 두르는 것)
 두린양은 갠날에 무지개요
 (부태야 허리에 두른모습은 비오고 난 뒤에 나타난 무지개요)
 막기야 감은 양은 삼대독자 외동아들 명 과 복을 감은 듯다
 (앞에 대나무에 베말아 있는 모습은 삼대독자 외동아들 명과 복을 감은 듯하다)
 챗발 한쌍 움긴 양은 어린아이 발자국 같다
 (채활 움긴 모습은 어린아이 발자국 같다)
 북 나드는 저 기록은 봉황이가 알을 낳고 선녀목을 넘나 듯다
 (북드나드는 저 기록은 봉황이 알을 낳고 선녀목을 들고 나오고 하는듯다)
 바디집 내려 치는 소리 손곳에 벼락이나 치는 듯다.
 (바디 집 내려치는 소리 산골짜기에 벼락 치는 듯 큰소리가 난다)
 이에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호부래비
 (이에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부인 없는 남자)
 나폴 나폴 나부손은 잔 버들 시버들 실실이도 갈렸구나.(올라갔다 내려
 갔다하는 나부손이 가는 버드나무 굽은 버드나무 하나하나 가려내었다)
 용두마리 우는소리 청산의 외기러기 짹을 잃고 우는 듯다
 (용두마리 소리가 청산의 외기러기 짹을 잃고 우는 소리와 같다)
 절로 굽은 신나무는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절로 굽은 신나무는 무슨 죄를 지어서)
 현신짝이 목을 메어 올라가면 슬피 울고 내려가면서 슬피 우네.

(헌신짝에 줄을 메어 올라가며 슬프게 울고 내려가며 슬프게 운다)
 군자 접석 도투마리 정자접석 넘어갔네
 (힘있게 소리 내어 도투마리 밀치면 내는 소리)
 벅대 똑똑 내리는 소리는 동지선달 서남풍에 낙엽내리는 소리 같다.
 그럭저럭 그 베 한 쌍을 다 짜냈네.
 압록강에 씻어다가 뒷도랑에 행가 가지고 그 베 한 필을 다 따듬어(다듬어)
 서울 과거 가실 서방님 도포 한 쌍을 지었더라.
 그 옷을 입으시고 서울의 장 안에 들어서니 과거장에 합격하네.
 마패를 앞에 두고 울렁 출렁 말을 타고 고을 안에 들어서니
 만인간이 환영하고 대 환영을 받았도다.



〈그림 5〉 벅틀가, 최복출 노래, 사진 한순희

3. 두산명주의 정통성

두산명주의 정통성을 살피기 위해 기산풍속도와 옛 사진을 통해 오늘날 두산마을 명주제직 풍습을 조사했다. 기산풍속도의 화가 김준근은 한국 최초 기독교 소설 유럽 문학작품 번역서인 『턴로력딩(天路歷程)』의 도판(圖版)을 담당했다. 그는 원산사람으로 호는 기산이다. 19세기 후반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외국상인과 선교사에게 상품을 팔수 있는 정도였다. 그 당시 남쪽 초량, 동쪽 원산, 서쪽 제물포에는 외국상인이 많이 드나들었고 평소 민중의 제반 생활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활약하던 한국인 풍속화가다. 기독교인 기산 김준근은 풍속화 그림을 팔았다.⁷²⁾

개항장에서 외국인에게 조선의 여러 가지 풍속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수출화(輸出畵)와 유사한 성격의 그림으로 개항장 풍속화라고 하겠다.⁷³⁾ 우리나라에서 김준근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 함부르크민족학 박물관의 동양학부에 소장되어있던 기산풍속도 79점을 한국 독일 양 국어로 엮은 『기산풍속도첩(Kisan-Genremalereien)』 (서울, 범양사출판부)이라는 단행본이 출간되면서 세계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다.⁷⁴⁾

1886년 부산초량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풍속화의 낙관에서 알 수 있다. 턴로력당을 지은 게일도 1889년 8월부터 1890년 5월까지 부산 초량에 살았다는 것을 그의 행적을 볼 때 추측하고 있다. 19세기말의 화가인 김준근은 18C 후반, 김홍도가 성취한 풍속화의 기상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⁷⁵⁾ 러트(Richard Rutt 1925~2011)가 쓴 『J·S.(James Scarth 1863~1937) 게일과 그의 한국민족사』에 의하면, J·S.게일의 『The Pilgrim's Progress』의 한역은 배재학당본과 상해본이 있는데 전자는 1895년 서울에서, 후자는 1893년 게일이 상해를 방문하면서 그 곳에서 출간한 것이다. 러트는 이 두 판본의 도판을 그린 화가가 원산 사람 김준근이라 적고 있다.⁷⁶⁾ 초량에 살던 기산이 어떻게 원산까지 갔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기산 김준근은 부산 초량에서 살았다. 주로 부산 인천등지의 개항장 주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쪽 지방의 풍속화가 많다.⁷⁷⁾ 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에는 아래 그림처럼 길쌈의 여러 과정을 그렸으며 오늘날 길쌈 도구와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1) 기산풍속도와 옛 그림 적견사

〈그림 6〉은 기산풍속도의 그림으로 여인이 아궁이 옆에서 누에고치에서 손으로 명주실을 뽑아내고 있는 풍속화다.

명주실을 뽑아내는 방식은 여인이 손으로 술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72) 조홍윤,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p. 11.

73)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10, p. 420.

74) 조홍윤, 『기산풍속도2권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p. 10.

75) 정병모, 『기산 김준근 풍속화의 국제성과 전통성』,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p. 985.

76) 조홍윤, 『기산풍속도2권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p. 11.

77) 정형호,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에 나타난 민속적 특징』, 중앙대민속학 논문, 2010, p. 189.

내고 있는 모습으로 실 끝을 사려내 그릇에 차곡차곡 담는다. 적견사는 나지막한 부뚜막 한쪽 끝에는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난다. 그 옆으로 솥을 두 개 걸어 놓고 한쪽 솥에는 고치를 넣어 놓았다. 바닥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나뭇가지와 고치를 적견사하고 남은 번데기를 담아내는 그릇이 있다. 아궁이에는 불이 타고 있는 풍경이다.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버선을 신고 한쪽 다리를 건너 올리고 앉아서 솥에 있는 고치에서 실을 사려내어 넓은 광주리 같은 그릇에 차곡차곡 담고 있다. 적견사하는 여인 뒤편에는 고치를 담았을 것 같은 큰 광주리도 보인다.⁷⁸⁾

〈그림 7〉의 손으로 적견사하고, 부뚜막에 솥을 두 개 걸고 있는 방법은 〈그림 6〉과 같다. 한사람은 불 조절을 하고 한사람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사려내어 그릇에 담고 있다.⁷⁹⁾



〈그림 6〉 적견사(續繭絲), 기산풍속도, 김준근, 동베를린미술관

78)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백 년 전의 기억』, 씨티파트너, 2009, p. 78.

79) 스왈른, 『기산김준근 조선풍속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시월대덕, 2008년, p. 42.



〈그림 7〉 명사봄고, 기산풍속도, 김준근, 동베를린미술관



〈그림 8〉 적견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8

〈그림 8〉에 보이는 적견사는 마을 어귀에서 부녀자들이 공동으로 실 뽑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웅기 물항아리와 깨진 박 바가지, 대나무소쿠리에 담긴 고치, 번데기 먹는 아이, 양은 냄비가 그 시대상을 추측한다. 냄비를 올린 부뚜막과 굴뚝이 특이하다. 옛 그림을 통해 시대상을 알 수 있다. 80)



〈그림 9〉 적견사, 출처: blog.naver.com.rany21

〈그림 9〉는 적견사 하는 솜은 마당에 굴뚝을 세워 걸고 실 사리기는 툇마루에서 왕채를 돌려 이용하고 있다. 한복 입은 모습과 고무신 그리고 도구등이 시대상을 말한다. 지금 두산 마을 적견사 방법도 도구와 장소 등이 조금 다르나 적견사 방법은 같다.

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 중앙 연구원 제공.



〈그림 10〉 적견사, 출처: blog.daum.net/mkyung55

〈그림 10〉은 쇠죽을 끓이는 가마 솥 옆에 솥을 걸고 적견사를 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낮은 부뚜막이어야 적견사 작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솥을 올릴 부뚜막과 아궁이를 별도로 만들었을 것 같다.

〈그림 11〉의 두산마을 적견사는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풍속을 이어오다 생활도구와 환경의 변화로 쉬운 방법을 찾아 수행하고 있다. 전통 시연회 때는 전통으로 하지만 지금은 취사도구의 편리함을 활용한다. 전통 방법으로 옛날에는 닻나무를 베어 껍질을 벗겨내고 속가지를 잘 말려서 불을 피워 불 조절을 했다. 또 참숯을 풍로에 올려 그 위에 가마솥을 올려 물을 부은 후 물이 끓을 때 고치를 넣어서 나무젓가락에 실을 걸어 올리는 방법과, 가마솥 둘레에 진흙을 개어 바른 뒤 가마솥이 뜨거워졌을 때 물을 부어서 실을 뽑는 방법이 있다.⁸¹⁾ 과거에는 대량으로 누에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봄누에고치를 뽑아 시렁에 걸어두고, 가을누에고치를 뽑아 모아서 그것을 합해서 명주를 짜거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그 이듬해까지 누에를 쳐서 고치를 얻어 실뽑기를 해서 명주를 짰다.⁸²⁾ 생활환경

81) 국립중앙과학관, 강원도 회양명주 제공

의 변화로 숯불대신 전기를 사용하고 무쇠 솥 대신 알루미늄 솥을 사용하지만 원재료인 고치의 실을 자아내는 적견사 방법은 과거와 다름이 없다. 명주짜기는 고대부터 할머니 어머니 딸 며느리로 내려온 기술전수이다. 사진이나 문헌으로 기록된 것 없이 아마도 구전(口傳)으로 가업의 전통을 이어받아 왔다.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양식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명주짜기의 방법도 조금씩 변했다. 그런데 민중의 제반 생활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활약하던 한국인 풍속화가 김준근이 그린 기산풍속도에 보이는 명주짜기에 관한 여러가지가 지금의 두산마을 명주짜는 할머니 어머니가 짜던 적견사의 전통방식이라고 본다.



〈그림 11〉 적견사, 두산리 명주전시관

(2) 기산풍속도 명사봄고(명주실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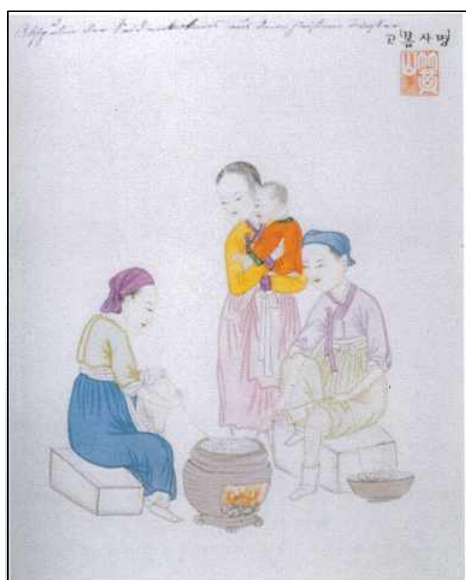
〈그림 12〉는 누에고치로부터 명주실을 뽑는 장면이다.⁸²⁾ 위쪽에 필사로 된 독일어 문장은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에 이 그림이 들어오고 나서 그곳 연구관에 의해 쓰인 것이다. 명사봄고는 어머니 세대가 누에고치 실을 사려내는 풍경인 것 같다. 무쇠 난로의 아궁이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다. 그 주위로 한복을 입고 마주 보며 앉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보이는 여인 두 명이 나무로 만든 네모난 통나무에 앉아 난로위의 솥에서 명주실을 손으로 사려 그릇에 차곡차곡 담고 있는 모습이다. 아기를 안은 한복 입은 처녀가 구경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시골 대가족시대의 모습이다. 이

82) 두산리 최복출 할머니구술(口述), 2012. 10.

83) 조홍윤, 『기산풍속도2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p. 68.

풍속화로 보아 앞의 적견사 방법에서 조금 발달된 풍습으로 보인다.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넣어 생활하던 시대에서 무쇠의 난로로 적견사하고 있으며 대가족시대 가족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산마을에서도 지금 현재 불 조절이 편리한 전기밥솥을 이용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대를 이어갈 딸이나 며느리 등 젊은층의 여성들 없이 마을의 할머니들이 모여 협동으로 적견사 하고 있다.



〈그림 12〉 명사봄고, 기산풍속도, 김준근, 독일함브르크 민족학박물관

(3) 기산풍속도 및 옛 그림 위사도호(緯絲塗糊) 베매기

〈그림 13, 14〉는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로 두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복 입은 모습으로 베매기를 하는 모습이다.⁸⁴⁾ 두산마을 베매기 방법으로는 꼬진 게(두산리 마을 방언)의 말뚝에 낄실을 걸고 도투마리를 걸치고 복판에 겹불(벧불)을 피운 가운데 낄실을 늘어놓고 솔로 풀 그릇에 있는 풀을 찍어 낄실에 바른다. 올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보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풀이 잘 마르도록 하기 위한 겹불(벧불)로

84)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전의 기억』, 씨티파트너, 2009, p. 113.

생슬가지나 왕겨로 불을 지핀다. 낱실의 풀이 마르는 대로 도투마리에 감아 가는데 올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벅대를 사이사이 끼워가며 풀을 바르는 공정이다. 그림을 보면 시골마당에서 불을 피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의 풍속화에서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 공동 작업이다.

〈그림 16, 17〉의 옛 그림 베매기사진을 보면 돌을 마당에 둥글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벅불을 모아 베매기를 하고 있다.⁸⁵⁾ 두 여인이 풀칠을 하기도 하고 한 여인이 하기도 하는데 모두 공동 작업이다. 풍속화도 옛 사진도 베매기는 도구만 조금 다를 뿐 방법은 같다.

〈그림 20, 21〉에서 두산리 마을의 베매기도 낱실 올 표면에 풀을 먹이는 것은 위의 풍속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베매기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 작업이라 마을 할머니들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위의 풍속도와 다른 것은 〈그림 18〉처럼 불을 담아도 녹아내리지 않은 큰 스테인리스 원형그릇에 콩깍지 태운 재를 담아서 불 조절을 은은하게 해서 낱실에 〈그림 19〉의 풀을 발라 곁불로 풀이 마르면 올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벅대를 끼워가며 도투마리에 감고 또 풀을 바르면 곁불로 말리고 그 작업을 반복했다. 모든 공정이 끝나면 마당에 불을 피운 것 보다 뒤처리가 편리했다. 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혜라 보았다. 두산리 베매기 방법은 기산풍속도와 옛 사진과 같다고 하겠다.

85) 강명관, 『조선풍속사1 조선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0, p.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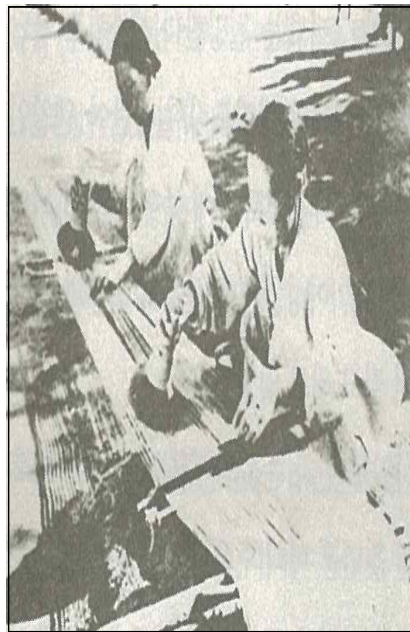
〈그림 13〉 위사도호(緯絲塗糊), 기산풍속도, 김준근,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14〉 양모는 너비, 기산풍속도, 김준근,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15〉 베매기, 단원풍속도,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6〉 베매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17〉 베매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18〉 두산리 베매기 뱃불, 사진 한순희



〈그림 19〉 두산리 베매기 쌀풀, 사진 한순희



〈그림 20〉 베매기, 두산리 명주전시관



〈그림 21〉 두산리 베매기, 사진 한순희

(4) 기산풍속도 및 옛 그림 직기(織機)

베틀은 명주 모시 무명 등을 짜는 틀로 『북학의』에는 직기(織機)로,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는 관(觀)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래 〈그림 22〉은⁸⁶⁾ 한 여인이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 모습이다. 모양은 나란히 세운 두 개의 앞 기둥에 의지하여 사람이 걸터앉기에 편한 높이로, 가운데에 세 장을 박은 틀을 가로로 끼워서 “ㄴ”자형을 이루고 있다. 오른쪽 끝에 앉아서 일을 하며 앞 기둥상부에는 용두머리에 얹혀서 기둥자체를 유지시켜준다. 용두머리 안쪽에는 두 개의 눈썹대가, 바깥쪽으로는 베틀신대가 반달처럼 걸려있다. 여인은 앞을 향해 앉아 오른발에 끌신(또는 베틀신)을 신고서 왼손으로는 북을 끼워가며 오른손으로는 바디를 치며 베를 짜고 있다. 바닥에는 그릇에 담긴 북실이 보인다. 베짜는 작업자의 속도에 따라 떨어지는 뱃대가 바닥에 어질러져있다. 〈그림 23〉에서 농가의 여인들이 베를 짜고 있는 것을 그린 풍속화에도 오늘날 두산마을의 농가를 보는 것 같다.⁸⁷⁾ 〈그림 24〉의 풍속화 베매기와 베짜기에 보면 여인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베를 짜고 있는 여인 뒤에 아이를 업고 있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가며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잔소리를 만류하듯 옷자락을 잡고 있다. 〈그림 25, 26〉의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 기행을 보면 직기가 나오는데 구조가 거의 같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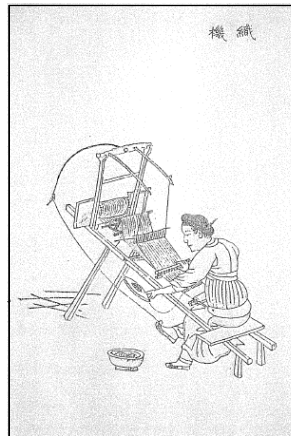
풍속화 및 사진을 살펴볼 때 두산마을 현재의 베짜기와 같다. 베틀의

86)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전의 기억』, 씨티파트너. 2009, p. 29.

87) 강명관, 『조선풍속사1 조선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푸른역사, 2010, p. 202

88) 부산 근대 역사관, 『사진 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2002, pp. 291~298.

구조도 같고 손명주 짜는 풍경도 그대로다. 옛 그림을 통해 지금 두산리 마을의 전통베틀의 정통성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림 22〉 직기(織機), 기산풍속도, 김준근,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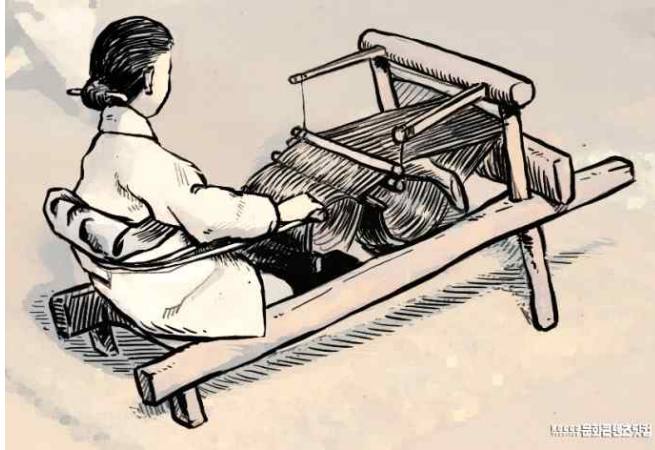
〈그림 23〉 〈농경직도〉 중 베짜기, 비단에 채색,
유운홍(1797~1859),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4〉 길쌈, 김홍도, 18C,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5〉 베를 짜는 여인, 부산근대역사관



〈그림 26〉 베를 짜는 여인, 문화콘텐츠닷컴

(5) 기산풍속도 베짜기

〈그림 27〉의 89)양모는 자비, 이 풍속도는 무명짜기의 베를 짜는 장면이다. 앞을께에 앉은 부인은 왼손에 북을 쥐고 있고 오른쪽 발에 끌신(또는 베틀신)을 신고 있다. 며느리인지 딸인지 그릇에 북실을 담아 가져온다. 명주나 무명이나 베틀과 베짜는 방법은 비슷해 보인다. 〈그림 28〉는 두산마을의 베짜는 모습이다.

89) 조홍윤, 『기산풍속도2권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p. 66.



〈그림 27〉 양모는 자비(베짜기), 기산풍속도, 김준근,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28〉 직기, 두산리명주전시관

(6) 옛 사진 다듬이질하기

〈그림 29, 30, 31, 32〉의 여러 장면의 옛 사진으로 본 다듬이질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⁹⁰⁾ 두산리 할머니들의 말씀에 의하면 베를 홍두깨에 돌돌 말아 다듬이질을 하고 또 홍두깨에 말아가며 또 다듬이질을 했다. 다듬이질을 마친 후에 홍두깨를 빼고 필로 보관했다.⁹¹⁾

90) 『사진 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부산근대역사관, 2004, pp. 291~298.

91) 두산리 이수봉구술, 2013. 5.



〈그림 29〉 다듬이돌과 다듬이 방망이, 디자인하우스 作, 두산백과



〈그림 30〉 다듬이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림 31〉 다듬이질과 다리미질, 이억영 作,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32〉 다듬이질하는 모습, 국립중앙과학관

IV. 전통명주의 계승과 활용방안

1. 전통명주로서 두산명주의 가치 [製織現況]

경주 두산마을 명주는 직접적인 계보체계는 알 수 없지만 마을 어른들에 의하면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전수받아 명주베를 짜고 있다. 이 마을 어른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명주짜기를 배워 길쌈을 했고 두산리로 시집을 와서 정착한 후에는 시어른로부터 전수받아 베를 짜왔다. <그림 33> 두산리 명주짜기는 일부 부유층들에게 수의용 명주를 팔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가내수공업으로 명주를 짜왔다.⁹²⁾ 1970년과 1980년대에는 뽕밭 재배면적이 많아 누에고치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990년대에는 뽕밭 주변의 다른 농작물 재배로 인해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고치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통해 지원하였다. 1997년에 사업은 폐지되었으나 경주시 지원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경주시 지원이 줄어들어 자가부담이 40%다. 지금은 양잠과 길쌈이 더욱 쇠퇴하여 두산마을에는 명주짜는 김분순, 김해두, 이수봉, 김봉선, 김화자, 김경자, 최해정, 동묵스님과 일반농가 이춘희가 뽕밭을 조성하여 누에치기를 하고 있다. 그나마 일손 부족으로 5명이 되었을 때 누에를 약용으로 판매하고 아주 소량의 누에로 고치를 만들어 길쌈한다. 고치로 길쌈을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누에를 약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일손도 줄고 수입이 좋다. 고치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주어야 길쌈량이 많아 질 것으로 본다.

2011년부터 경주시 서면 도리에 계약 재배(500kg)하여 고치를 일괄 수매하여 두산리 마을에 공급한다. 길쌈농가가 자가 양잠에서 수확한 고치로만 길쌈을 하다 경주시에서 고치수매로 지원해 주니 길쌈비중이 높아지면서 절감된 노동력으로 제직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런데 장례문화의 변화로 수의용 명주 구매자가 줄어들고 있다. 농가에서는 생활한복으로 생명주의 장점을 홍보하며 판로를 찾고 있지만 기계명주와 값

92) 김영자, 최복출, 이수봉 구술(口述), 2013. 7.

두산마을 명주길쌈은 제사(製絲) 製織(제직) 공정 실뽑기, 실뜯기, 광채 나르기, 베나르기, 바디실 꿰기, 베매기를 하고 꾸리감기 및 베짜기 공정을 농가에서 할머니들과 같이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기산풍속도에 있는 명주길쌈 공정과 비교 분석 검토하였다. 시대의 변천으로 도구만 조금씩 변화되었지 손명주 길쌈은 정통 그대로 이어오는 것이라 하겠다. 개개인의 베짜는 솜씨에 따라 명주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그림 33〉 베짜는 도구, 두산마을 전시관

(1) 두산리 뽕밭조성

뽕나무의 현황을 살펴보면 뽕잎은 누에를 기르는데 이용된다. 산과 하천에 자생하고 있던 뽕을 이용하여 두산마을이 누에치기를 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대한 잠사회 한국잠업사에 보면 우리나라는 도처에 야생 뽕나무와 집 주변에 키가 크고 오래된 뽕나무가 10여주씩 산재되어 있는 산식(散植) 뽕밭이 대부분이다. 지금도 두산리는 산과 들에 야생 뽕나무가 많다. 우리나라는 1960년-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된 것이 누에고치에서 나온 비단이었다. 이후 급격한 산업발달로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집약적인 양잠업은 산업화에 밀려 양잠농가가 줄어들면서 거의 소멸되었다. 두산리에도 몇몇 농가만 남게 되었다. 경주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 환경적응성이 약한 3령까지의 애누에를 공동으로 사육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⁹³⁾ 경주양잠협동조합법인은 경주시 자금지원으로 애누에 1,200상자를 공동 사육함으로 폐사율을 낮추고 품질 균일화를 이루어 각 농가에 공급한다.⁹⁴⁾

지금은 두산리도 양잠업 자체가 사향 길로 접어들어 입는 실크에서 먹는 실크로 건강식품으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 누에는 다른 풀이나 나뭇잎은 절대 먹지 않고 뽕잎만을 먹는다. 명주길쌈의 원재료인 누에고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뽕밭을 조성하여 재배해야한다. 뽕나무에 농약을 치게 되면 그 잎을 먹는 누에는 모도 죽게 된다. 따라서 주변 논밭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농약을 치면 뽕잎에 농약이 묻게 된다. 뽕밭 조성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누에를 치려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뽕밭 선정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뽕밭 조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조선왕조 세조1년에는 종상법(種桑法)을 제정하여 대호(大戶)는 300그루, 중호(中戶)에는 200그루, 소호(小戶)에는 100그루, 가난한 농가에는 50그루씩 심게 하여 정책적으로 뽕나무 재배를 장려했다.⁹⁵⁾ 뽕잎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뽕잎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등

93) 경주시 제공, 2013. 10.

94) 경주시 양잠협동조합 제공, 2013. 10.

95) 『朝鮮王朝』, 卷16, 世祖實錄, 1년.

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두산리도 노동집약산업인 누에치기가 일손부족과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점점 비단 찾는 수요층이 줄어들면서 뽕나무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그림 34> 처럼 김분순, 김해두, 이수봉, 김봉선, 김화자, 김경자, 최해정, 동묵스님과 일반농가 이춘희 등 9호(戶)가 뽕나무를 재배하여 경주시 양잠협동조합으로부터 3령의 누에를 공급받아 누에치기를 하고 있다.⁹⁶⁾ 그렇지만 누에를 고치로 만들어 명주를 제직하는 것 보다 약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수익이 많아 농가는 건강식품 판매 쪽으로 기운다.⁹⁷⁾



<그림 34> 뽕밭조성, 두산리 동묵스님 뽕밭, 사진 한순희

(2) 누에치기 방법⁹⁸⁾

양잠이라고도 하며 춘잠(春蠶)은 4월경, 추잠(秋蠶)은 8월경으로 나뉜다. 뽕나무를 심어서 뽕잎으로 누에를 기른다. 누에는 머리, 가슴, 배의 3부분으로 나뉘고 누에 띠는 13마디를 가지며 알, 누에, 번데기, 나방의 4단계를 거쳐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이다. 누에는 알로서 월동하며 봄에 부화하여 아래 <그림 35> 처럼 개미누에가 된다. 부화 직후 검은색의 털로 인해

96) 두산리 동묵스님구술, 2013. 3.

97) 경주시 농정과 제공.

98) 누에치기방법은 필자가 어릴 때 집에서 직접 누에치기한 경험과 두산리 이수봉, 동묵스님, 김봉선구술, 2013. 5.

개미누에라 부른다.



〈그림 35〉 개미누에,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개미누에는 3일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먹다가 하루 동안 잠을 자고 허물을 벗고 일어나면 〈그림 36〉 처럼 1령이 된다. 농가에서는 한 잠 잤다고 한다.



〈그림 36〉 누에치기 1령,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그림 37〉에 있는 것처럼 한 잠잔 누에가 갇아먹기 좋게 뽕잎을 잘게 채 썰어 준다. 3일 동안 밤낮없이 뽕잎을 먹다 하루 동안 잠을 자고 허물을 벗으며 일어난다. 이때 두 잠 자고 일어났다고 한다.



〈그림 37〉 누에치기 2령,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그림 38〉에 있는 것처럼 2령 된 누에가 밤낮없이 3일간 먹는다. 누에가 두 번째 잠자고 일어나서부터는 썰지 않은 통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가 하루 동안 잠을 자고 허물을 벗으며 일어나면 3령이 된다.



〈그림 38〉 누에치기 3령,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그림 39〉에 있는 것처럼 3령의 누에가 밤낮없이 3일간 먹고 하루 동안 자고 허물을 벗으며 일어나면 4령이 된다.



〈그림 39〉 누에치기 4령, 경주시양잠협동조합

〈그림 40〉에 있는 것처럼 4령의 누에가 4일간 먹는다. 4번 잠자고 일어나면 가지달린 뽕잎을 그대로 채반⁹⁹⁾의 누에위에 올려주어 뽕잎 따는 일손을 줄여준다. 먹고 자란 누에가 2일간 잠을 자고 허물을 벗고 일어나면 5령이 된다. 이때 농가에서는 마지막 잠자고 일어났다고 한다.



〈그림 40〉 누에치기 5령, 경주시양잠협동조합

99) 옛날에는 싸리나무나 대나무 등으로 엮어 만든 도구 요즘에는 현대식 채반 이용.

〈그림 41〉에 있는 것처럼 6~8일간 밤낮없이 먹고 자라면 고치를 짓기 쉽도록 쉼(누에가 쉼 구멍에 들어가서 고치를 짓기 쉽도록 만든 잠구)에 올려준다.



〈그림 41〉 쉼에 올리기 직전, 경주시양잠협동조합

〈그림 42〉에 있는 것처럼 잠을 자고 일어 날 때 마다 누에똥을 갈아 주며 위생적으로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똥을 먹고 자라면서 몸무게가 10,000배로 빠르게 자란다. 익은누에가 되는 5령 6일경에 암수를 감별할 수 있다. 암컷은 11, 12마디사이에 작은 점이 한개 있다. 암컷은 몸이 크고 활동이 둔하지만 수컷은 몸이 작고 활발하게 움직인다.¹⁰⁰⁾ 5령 7일 되면 누에의 몸속에 실 뉘가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바로 전 시기의 누에가 약리효과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일부는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한다. 마지막 똥을 싸고 고치를 치기 위해 입을 이리 저리 고치를 칠 자리를 찾는 것 같으면 쉼에 올려주면 고치를 짓는다.

100) 양잠협동조합 및 누에치는 마을 농가 제공, 2013. 3.



〈그림 42〉 솥에 올려 진 누에, 경주시양잠협동조합

〈그림 43〉의 수확한 고치는 누에가 입으로 명주실을 뽑아 3일간 고치를 짓는데 봄고치가 가을고치보다 실이 질기고 실의 길이도 더 길어 양도 많다. 먼저, 고치를 만들고 허물을 벗은 다음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기간은 약 10일-12일 가량이다. 그 후 다시 허물을 벗은 다음 나방이 된다. 나방은 아침에 고치를 벗고 나와 교미를 한 후,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알을 낳고 4-5일 후 죽는다. 누에알을 받아내고 부화하면 개미누에가 된다. 농가에서는 번데기가 나방이 되기 전에 실뽑기를 해서 실을 사려낸다.



〈그림 43〉 누에고치 수확, 경주시양잠협동조합

두산리는 고치를 술에 살짝 찌서 일손이 한가할 때 실뽕기를 해서 베짜는 공정을 거친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는 조선말기 정학유(1786-1855)가 지었다. 그중에 누에치기에 관한 것은 아래와 같다.¹⁰¹⁾

3월령

뽕눈을 살펴보니 누에날 때 되겠구나.
어화 부녀들아 잠종을 전심하소
잠실을 소쇄하고 제구를 준비하니
다라끼 칼도마며 채광주리 달발이라
각별히 조심하야 내음새 없이하소.

4월령

한잠자고 이는 누에 하루도 열두밥을
밤낮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먹이리라
뽕따는 아이들아 훗그루 보아하여
고목을 가지 짚고 햇잎을 제쳐따소

5월령

잠농을 마칠때에 사나이 걱정 없이하세
누에썩도 하려니와 고치나무 장만하소
고치를 따오리다 청명한 날 가리어서
밭위에 엮게 널고 폭양에 말리우니
쌀고치 무리모치 누른고치 흰고치를
색색이 분별하여 일이분 씨를 두고
그나마 켜오리라 이재미 보는구나

『농가월령가』에서처럼 누에를 잘 치기 위해서는 잠실과 잠구 소독을

101) 고영화.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 나타난 시간관의 교육적 고찰, <선청어문> 36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pp. 17-43.

철저히 해야 하며 밤낮없이 뽕 밥을 주어야한다. 냄새에 민감한 곤충이어서 농약 냄새가 나지 않아야하고 온도 습도 조절을 잘하여야 병이 걸리지 않는다.

(3) 두산리 명주 제직방법

명주제직을 두산리에서 필자가 직접 수행하며 공정별로 사진을 찍었다. 다음과 같다.

① 실뽑기(실써기) <그림 44>

춘잠, 추잠으로 나누어 뽑으며 양잠이라고 한다. 누에알을 부화시켜 고치를 얻는 작업을 실뽑기 작업이라고 한다.

실은 가늘기 때문에 원하는 실의 굵기를 얻으려면 30~50개의 고치를 넣어 실을 뽑아낸다. 너무 오래 삶으면 실이 파지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동안 삶는 것이 중요하다. 솥에 물을 붓고 끓을 때 고치 30-50개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저으면 실이 걸려 나온다. 그 실을 건어 올려서 바탕고리에 실을 끼워서 왕채에 감는다. 그 후 왕채 손잡이를 돌리면 실이 계속 감긴다. 실이 다 감길 때쯤 되면 다른 고치를 계속 보충시켜서 실의 굵기를 일정하게 한다. 실이 풀려나간 투명해진 번데기는 젓가락으로 계속 집어낸다. 옛날에는 왕채 같은 기구 없이 손으로 고치실을 사려내었다.¹⁰²⁾

고치 한 개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는 1,300-1,500미터로 천연섬유 가운데 가장 실이 길다. 굵기는 0.002mm정도이다. 고치 5kg 이면 한 필의 명주실을 뽑을 수 있다. 고치도 춘잠 실이 단단하며 굵다. 이 공정은 두산리 실뽑기의 특수한 공정으로 두 사람 이상 공동작업 한다.

필자가 직접 실뽑기를 수행하며 경험으로 파악하면서, 두산리 제직 기술 고문들이 들려준 주의 점은 다음과 같다.

- a. 물레에 감을 때 십자로 돌려 다섯 번 감아서 물레에 돌린다.
- b.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70-80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물을 자주 갈아 주어야 명주실이 깨끗하다
- c. 고치의 실을 뽑아 투명하게 되어 고치 속의 번데기가 투명하게 보일

102)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 씨티파트너. 2009, p. 125.

때까지 골라내어야 실의 양이 많아진다.

d. 고치에서 풀려나가고 남은 번데기를 젓가락으로 골라내어야 실과 함께 걸려 올라가서 실을 더럽히지 않는다. 또한 실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e. 실의 세수(10-15수)가 높을수록 곱고 가늘다. 보통 12-13수 정도의 실을 뽑는데 고치를 적당하게 넣어야 원하는 세수의 실을 뽑을 수 있다.

f. 풀려나온 고치실의 굵기는 우량 고치일 때는 실이 단단하며 양도 많다



〈그림 44〉 실뽑기, 사진 한순희

② 실 뜯기(실 고르기) 〈그림 45〉

물레에 감은 타래 지은 실을 내린 다음 누에냄새를 뽕 목적으로 하루 정도 물에 폭 담가 행구어 내기를 반복한다. 붙어 있는 실을 물에 담가 올이 풀어지게 한 다음 물기를 꼭 짜내고 타래지은 실을 한쪽은 발에 걸고 나머지 쪽은 무릎에 걸어 한 올 한 올 뜯어 햇볕에 말린다.



〈그림 45〉 실뜯기, 사진 한순희

동물성 직물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을 뜯어서 빨리 말려야 상하지 않는다. 옛날 냉장고가 없을 때는 한꺼번에 실 내리기를 많이 할 수 없었다. 햇빛 맑은 날을 잡아 당일에 실을 내리고 실을 뜯어 말리는 공정을 모두 마쳐야 했다. 두산리는 한가한 날을 잡아 공동으로 실뽑기를 해서 말려두고 사용하여 일손을 줄인다. 〈그림 46〉



〈그림 46〉 실 말려 보관하기, 사진 한순희

두산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 해충에 약한 누에 실을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 보관한다. 한필의 베를 짜는 실을 확보하지 못한 옛날에는 통풍이 잘 되는 시렁에 걸어 보관하였다.¹⁰³⁾

③ 광채 나르기(실 내리기) <그림 48>

실내리기는 왕채에서 내린 실을 물에 넣어 말린 후, 실을 풀어 다시 실패에 감는 작업이다. 두산 마을에서는 분유 깡통을 이용한다. 실을 분유 깡통에 감다가 실이 끊어질 경우에는 실을 다듬어가면서 연결한다.¹⁰⁴⁾ 실이 가늘면 더욱 잘 끊어지기 때문에 실뽑기 할 때 실의 굵기를 잘 조절해야한다. 깡통에 감는 실이 타래 속으로 숨어있는 정도와 실의 끊어지는 횟수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두산리의 오랜 경험자는 맨 처음 광채에 감은 실과 맨 끝에 감은 실을 표시하여 찾아내어 순서대로 실 내리기를 하면 작업하기가 쉽다.



<그림 47> 광채나르기 전의 실, 사진 한순희

103) 두산리 최복출구술, 2012. 7.

104) 두산리 이수봉구술, 2012. 11.



〈그림 48〉 광채나르기, 사진 한순희

④ 베 나르기(베날기) 〈그림 55〉

베 나르기 과정은 12개의 구멍으로 실을 통과시켜 한 번에 켜 후 날틀에 걸어, 길이에 맞춰 실을 나는 작업이다.

강통 12개를 새쫓기 틀 밑에 놓고 강통 12개의 하나하나의 실을 날꼬지에 있는 구멍을 통해 빼낸다.〈그림 49, 50〉 12새면 12개구멍을, 15새면 15개의 구멍을 통과시키는데 두산마을 날꼬지¹⁰⁵⁾는 구멍이 16개 뚫렸다.



〈그림 49〉 날꼬지 구멍으로 날실 통과, 사진 한순희

105) 표준말은 조슬대이며, 두산마을의 날꼬지는 통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림 50〉 실 감긴 깡통, 사진 한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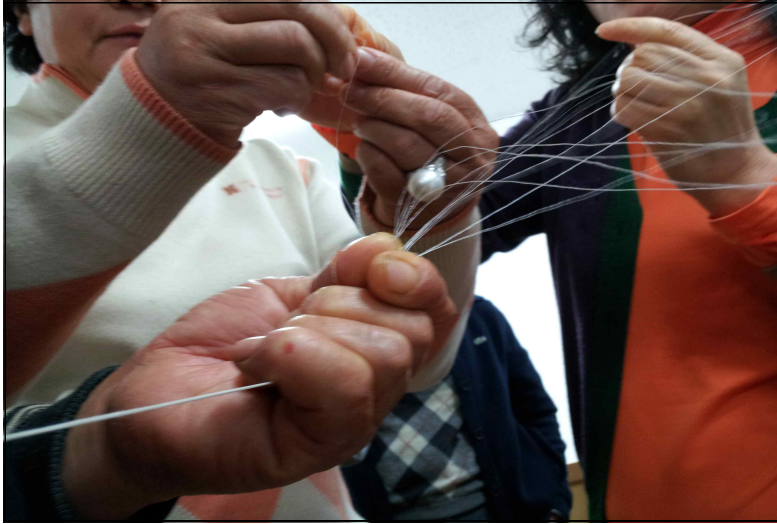
두산명주 1자는 54.5cm로 명주 40자가 1필이다. 〈그림 51〉



〈그림 51〉 1필 길이를 자로 잦, 사진 한순희

실을 끼워서 12올을 한 번에 손에 거머쥐고 새쫓기를 한다.¹⁰⁶⁾ <그림 52, 53>

106) 새쫓기는 한 손에 12올을 거머쥐고 길이에 맞춰 실을 나는 작업을 새쫓기라고 한다.



〈그림 52〉 날실 올 세기, 사진 한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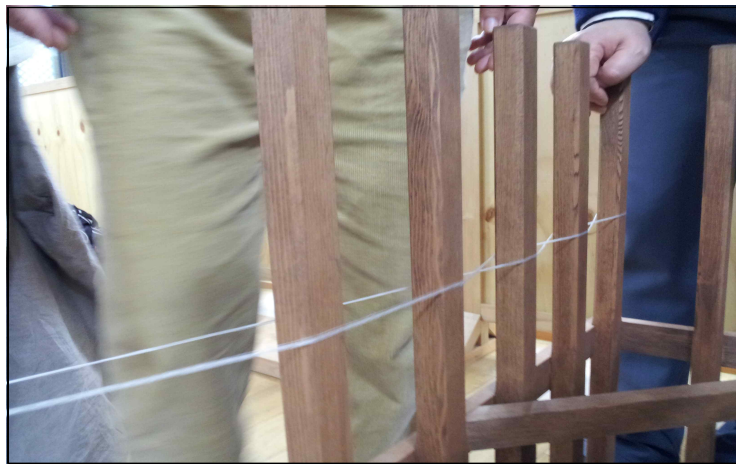


〈그림 53〉 새쫓기, 사진 한순희

새쫓기 한 것을 말뚝에 8자로 건다. 그 것을 손에 거머쥐고 다시 들말에 건다.

들말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하나의 기둥에 실을 먼저 걸고 다시 말뚝에 왔다가 다시 손에 건다. 그 후 실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구멍이 12개

면 12새, 15개면 15새(보름새)이다. 두산마을은 보통 13새에서 14새를 한다. <그림 54, 55, 56>



<그림 54> 참새 개새 엮갈리는 그림, 사진 한순희



<그림 55> 베 나르기, 두산리 명주전시관



〈그림 56〉 베 거두기 전, 사진 한순희

검정 솥으로 개미를 찍는다. 베를 짤 때 베가 얼마 남았는지 계산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는 것을 ‘개미를 찍는다’ 라고 한다. 개미는 20자 간격으로 3번 찍는다. 개미가 올라오면 내가 어느 정도 베를 짰는지, 꾸리가 몇 개 들어갈지, 베가 얼마정도 남았는지 계산이 가능하다.

거두기를 할 때, 예전 두산마을에서는 손에 빠리를 감았으나, 요즘은 편의성을 위해 나무판에 감는다. <그림 57>



〈그림 57〉 손에 감기, 사진 한순희

⑤ 바디 실 꿰기 <그림 62, 63>

날기 작업이 끝나면 실을 바디에 한 올 한 올 꿰는 작업이다. 참새, 개새로 8자를 만든 실을 바디에 하나하나씩 끼워 베매기 준비를 한다. 바디살 종류는 11새에서 15새까지로 새수에 따라 선택해서 작업한다. 12새에 날았으면 12새 바디에, 15새에 날았으면 15새 바디에 맞게 끼운다. 보통 바디를 정해놓고 베를 난다. 바디와 대나무 두 개로 된 사치미를 이용한다. 사치미에 참새, 개새로 8자를 만든 실을 대나무 두 개에 각각 끼운다. 두산리에서는 베매기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개대 참새 사치미 끼울 자리를 끈으로 표시하며 끼워진 올은 나누어서 묶는다. <그림 58, 59, 60, 61, 62>



<그림 58> 여러종류의 바디, 사진 한순희



〈그림 59〉 바디실 꿰기 준비, 사진 한순희



〈그림 60〉 사침대 끼우기, 사진 한순희



〈그림 61〉 바디실짜기, 사진 한순희 〈그림62〉 바디실짜기, 사진 한순희

⑥베매기

추운 계절에는 베의 실이 잘 끊어지며 정전기가 일어난다. 더운 여름에 베매기 할 때 매기가 좋다.

베를 땔 때에는 들말 위에 도투마리를 올려놓고 풀칠한다. 한쪽 끝을 도투마리에 매고 다른 쪽 끝은 꼬징개에 말아 고정시킨 후 밀가루 풀을 베솔에 묻혀 골고루 칠한다. 꼬징개란 도투마리를 말 때마다 끌려온다고 해서 꼬징개라고 한다. 이때 풀을 바르면 명주실의 털이 실에 붙어 매끄러워진다. 매끄러운 실로 바디가 오르내리기 쉽게 하는 역할을 해 준다.

<그림 63, 64>

말린 후 뱃대를 집어넣어서 도투마리를 만든다. 먼저 풀칠한 후 마르면 뱃대를 넣어서 감고, 반복한다. 함석 불 대야에 숯불을 담아서 풀칠한 것이 마르도록 한다. 잿불로는 약해서 숯불을 이용한다. 마르면 불지 않도록 뱃대를 넣어서 도투마리로 감는다. 바른 풀을 말려주는 뱃불도 참나무 숯이나 소나무가지를 태운 불씨를 사용하는데 불김이 많이 남아도 적게 남아도 실이 바로 마르지 않는다.

마른 실을 도투마리에 감을 때 처음에는 뱃대(뱃대)를 세 개씩 넣어

감다가 점차 2개 그리고 한 개씩 넣어 감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한필을 다 감는다. 실이 끊어지면 떨어지지 않도록 비벼주거나 나비매듭을 짓는다.

명주베 공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도투마리 감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두산리에서는 베매기공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도투마리를 오른쪽 왼쪽 균형감을 잃지 않고 반듯하게 감았을 때 베짜기가 쉽다.

일손이 아주 많이 가는 공정이라 서로 품앗이를 한다. 밀을 발효시켜 (5-7일) 갈아서 풀을 칠하면 강도가 강해 실이 뻗뻗해진다. 특히 찹쌀을 삭혀 발효시킨 것으로 풀을 하면 옷이 반들반들 윤이 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 개대를 끼우고 사치미(씨실.날실)를 끼운다. 바디 뒤로 가는 것을 참새, 바디 앞에 가는 것을 개대라고 한다.

베매기 할 때 많은 일손과 시간을 필요로 해서 두산리에는 할머니들이 공동 작업을 한다. 쌀 풀할 때 적정한 온도와 농도조절을 잘해야 실이 뻗뻗하고, 끊어진 실을 찾아 서로 이어 매듭을 잘 지어야 베짜기가 용이하다. <그림 65>



<그림 63> 꼬징게에 묶인 날실, 사진 한순희



〈그림 64〉 풀칠하기, 사진 한순희



〈그림 65〉 도투마리에 감는 작업, 사진 한순희

⑦ 꾸리감기

북안에 넣어서 씨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알맞게 비대에 실을 감는 과정이다. 부대에 실을 8자로 돌려가며 계속 감는다. 부대를 왼손에, 실을 오른손에 쥔다. 부대 윗 부분에 실을 걸 수 있도록 홈이 있는데 그 곳에 실을 걸고, 몸통부분에 8자로 돌려가며 실을 감는다. 다 감은 후에 부대를 빼면 실이 팽팽하게 유지되어 있다. 이 과정이 숙련되지 않으면 실이 실패에서 풀려나와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림 66〉 꾸리감기, 사진 한순희

〈그림 67〉 실과 북, 사진 한순희

⑧ 명주 베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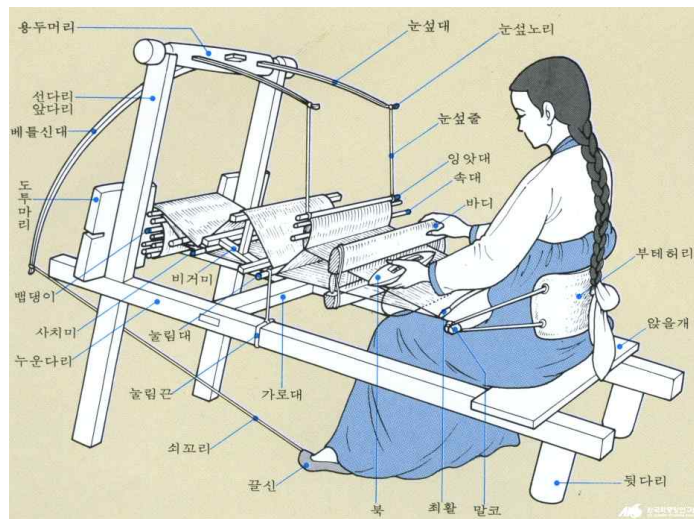
두산리의 대부분의 가정에는 베틀과 길쌈기구를 갖추고 있다. 베틀은 전부 요직기형 전통베틀이다. 베틀은 차린다는 용어를 쓴다. 베틀에는 다리가 두 개 있는데 그 위에 도토마리를 얹는다. 도토마리를 얹은 후 용두마리를 설치하고, 잉아대 세 개에 잉아실을 걸어 쥔다. <그림 68, 69, 70>



〈그림 68〉 잉아걸기, 사진 한순희



〈그림 69〉 부데야와 짚신, 사진 한순희



〈그림 70〉 베틀 명칭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베를 짤 때에는 안장에 앉아서 짤다. 베를 말아서 베를 말끼에 감은 후 바디로 베를 짜는데 씨실과 날실이 교차되게 한다. 꾸리 감은 것을 씨실이라고 하고 바디를 날실이라고 한다. 바디를 कु친 후 바디를 제거놓고 북실을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넣으면서 베를 짤다. 베를 짜면서 물을 적시는 도구인 저질개로 이미 짤 베를 적셔준다. 짜놓은 베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바디가 오르내리며 뺏뺏한 실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짤 때 바디를 탕탕 쳐야 발이 곱다. 실이 잘 내려가기 위해 물을 분무기로 뿌리면서 짤다.

한올 한올 정성을 다하여 장인정신으로 짜지 않으면 명주의 발이 곱지 않다. 명주는 특히 올이 가늘어 가장 곱은 것이 10새이고 보통이 12~13새이며, 15새는 보름새라고도 하는데 15새 정도가 되어야 상품(上品)으로 친다.

그런데 1필을 직조하는 시간은 10~20일이 소요되지만 직조하기 전 단계, 즉 실뽑기에서 베매기까지의 과정이 보름(15일)이상 걸린다. 직조도 중요하지만 직조하기 전의 과정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두산마을에서는 단체로 하니 어려운 과정도 서로서로 도와가며 극복하는 것 같다. 직조하기 전 실 곱기 조절도 실뽑기 할 때 1차로 하고 실 내리기 할 때 2차로 하는데, 곱기에 따라 가는 것은 씨실, 곱은 것은 날실로 들어간다. 그래서 실 내리기 할 때 가는 것, 곱은 것을 따로 감는다. 염색용 명주는 염색과정에 실이 가늘어 지기 때문에 원단을 염색해야 한다. <그림 71, 72, 73>



〈그림 71〉 잉아걸기 완성(베짜기 전), 사진 한순희



〈그림 72〉 채활 손질¹⁰⁷⁾, 사진 한순희

107) 베를 팽팽하게 고정시켜 주는 역할.



〈그림 73〉 베짜기, 사진 한순희

⑨ 후처리(푸세하기)

생명주: 물에 불려 풀을 빼고 다듬으면 생명주가 된다. 뽕뽕하고 윤이 난다. 한복이나 여름용 옷감으로 사용(도복, 여름용) 삼베나 모시에서 찾지 못하는 생명주만의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 생명주는 실크 자체의 우아함이 있다. 우천에도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으며 몸에 달라붙지 않는다. 모시와 삼베는 반드시 풀 먹임 작업을 해야 하지만 생명주는 풀 먹임 작업이 없어도 풀 먹임 한 것처럼 뽕뽕하다. 얼룩이 저도 세탁을 하면 모두 빠지고 다림질만 해서 옷을 바로 입을 수 있는 것이 두산리 생명주의 장점이다.¹⁰⁸⁾

익명주: 콩각지나 짚을 태워서 나오는 재를 콩나물 시루에 얹혀서 물을 부으면 잿물이 나온다. 그 잿물이 팔팔 끓을 때에 다 찐 명주를 넣어서 삶는다. 잿물에 삶은 익명주는 쌀풀을 곱게 하여 보관한다. (겨울용 옷감, 수의용) 따뜻하지만 물방울 하나에도 쉽게 얼룩이 생겨 관리의 어려움이

108) 두산리 명주제작자 동묵스님구술, 2013. 5.

있다. <그림 74>



<그림 74> 잿물에 삶기, 사진 한순희

익명주 만드는 법: 알콩대. 쥘. 술잎을 태우고 남은 재를 물에 풀어 형 갇을 소쿠리에 놓고 잿물을 받는다. 농도(PH 11) 그 잿물을 100도로 끓여 풀기를 제거한 생명주를 넣고 5분정도 끓인다. 건져낸 명주를 찬물에 행 구어 또 다시 물에 하루정도 두었다가 햇빛에 말리고 다시 담가두었다가 햇빛에 말리기를 두 번 반복한다. <그림 75>

그런데 구매자들이 하얗고 하늘하늘한 부드러운 명주를 찾기 때문에 잿 물에 삶을 때 잿물을 강하게 하는데 그것은 옷감이 쉽게 상한다. 명주의 원래색은 약간 누렇다. 잿물을 강하게 하는 것은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¹⁰⁹⁾

109) 두산리 명주제직자 동목스님구술, 2013. 7.



〈그림 75〉 명주 말리기, 사진 한순희

⑩ 다듬이질 하기(도의 搗衣) 〈그림 76〉

두 사람이 마주앉아 장단을 맞추어가며 방망이를 두드린다. 두 여인이 약간 물기 있는 명주 베를 보자기에 싸서 다듬잇돌에 올려놓고 방망이를 두드리면 다림질한 것처럼 매끈해진다. 다듬이질을 잘하여야 올이 바르게 되어 천이 매끈하고 반들반들 윤이 나며 곱다. 다듬이질을 한 명주를 건조시켜 둘둘 말아 보관하며 필 단위로 판매한다.



〈그림 76〉 다듬이질, 사진 한순희

〈그림 76〉의 완성된 제품을 보면 같은 13세의 명주베지만 제작자의 기술에 따라 질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7〉 13세 명주 비교, 출처: 동묵스님, 사진 한순희

2. 전통명주 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

세계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 조약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존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다.¹¹⁰⁾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나라마다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무형문화유산 중에 두산리 전통명주도 발굴과 보존이 필요한 무형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손명주의 경제성이 떨어져 명주생산과 직조와 관련된 전통기술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보존과 계승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산리 전통명주와 같이 그 맥

110) 2008 한국민속학자대회 제공

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필요가 있다. 두산리 손명주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1) 무형문화재로서 두산리 전통명주의 가치

전통적인 명주짜기는 단종 2년(1456)부터 보급되었고, 이 기법을 두리실에 정착시킨 사람은 15세기 후기 군수를 지낸 권유검의 숙모인 여흥민씨(驪興閔氏)라고 전해지고 있다. 향토지인 『경산지(京山誌)』, 『성산지(星山誌)』 공물조(貢物條)에 면주(綿紬)라는 기록이 있다.¹¹¹⁾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 마을을 중심으로 전통 명주짜기를 보존 및 계승시키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등재시켰지만, 지금은 맥이 끊긴 상황이다.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 명주는 기능보유자 조옥이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다. 두리실 명주 한필은 40자, 즉 21.6m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는 별세하여 조옥이여사의 다섯째 동서인 이규종이 계승하고 있지만 2007년 조옥이여사의 작고 후 지금까지도 기능보유자로 승격되지 않은 채 전수교육조교로 그대로 남아있다. 기능보유자가 아닌 고령의 이규종 전수조교 한 사람만이 아주 소량의 명주길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가 실제로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전수교육을 법제화했지만, 관리부족으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지속적인 전승이 어렵게 되었다.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 마을과 마찬가지로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에는 마을 단위로 전통 손명주 짜기를 하고 있지만, 최고의 솜씨 보유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전통 명주짜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 맥이 끊길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산리 전통명주가 무형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에 경주 두산리 명주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전통 명주를 제작하는 곳은 성주와 경주 두 지역뿐이다. 복제본 제작에 필요한 명주가 두산리 전통명주로 선택된 것은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 전통명주가 15새로 제작하고 있어 복제 대상의 표장 직물

111) 향토지, 성산지, 공물조, 면주, 경북 성주군청 홈페이지, 2013.

에 비해 치밀한 편이나 한사람만이 제작하고 있어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필요량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주 두산리 전통명주가 성주의 두리실 전통명주보다 다소 거친 태가 나지만 11~15세를 제작하고 있어 근접한 직물이라고 할 수 있고 복제본 제작에 필요한 명주의 무량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에 필요한 명주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직물공장의 직기에서 생산된 명주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전통제작에서 나오는 약간 거친 느낌의 손맛을 나타내기 어렵다. 표장 직물의 특성과 태를 비교하여 보면 경주 두산리에서 생산되는 명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2012년에 13필, 2013년에 10필로 모두 23필이 조선왕조실록 표장복원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¹¹²⁾

두산리에서는 여러 사람이 명주를 제작하고 있는데, 15세는 많이 짜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11~13세의 명주를 생산하고 있다. 두산리의 명주는 주로 수의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소 거칠게 직조하는 경우가 많아 15세보다 11~13세 명주 제작이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두산리 전통명주의 직조는 밀도 13세, 폭 35cm내외,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매기 등의 작업을 거쳐 전통베틀에서 직조한 것이다. 경주양잠협동조합에서 애누에를 구입하여 두산리 7~8가구가 누에를 봄에는 30장, 가을에는 15장정도 친 것을 가지고 직조를 하고 있다. 직조과정은 실잣기, 자은실 고르기, 실내리기, 베날기, 베매기, 베짜기, 후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제한 명주를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에 채택하였다.¹¹³⁾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표장 직물을 선택하기에 앞서 밀도와 실의 직경을 측정하여 가장 근접한 것으로 채택 되었다는 점에서도 두산리 전통명주는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를 이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명주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숙련된 전통기술로 양질의 베를 짜야 한다. 그러나 숙련된 전통기술 보유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명주 직제를 전수하기 힘든 실정에 놓여 있어 전통명주 직제에 관련된 기능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무형문화재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 하는 생물학적 특

112)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주) 다해미디어, 2013, p. 112.

113)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주) 다해미디어, 2013, pp. 96~97.

성을 지니고 있고, 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는 시간적, 공간적 문화형태이기 때문에 소멸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원형보존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단은 분야별 자문 위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자문과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전통방식으로 제직한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서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매기등의 작업을 거치고 전통베틀에서 직조한 13새 명주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 제직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두산리 전통명주는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두산리 전통명주 제직법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려면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한다. 두산리 손명주 제직법은 중요 민속문화재 지정 중 직물공예 분야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며, 현저한 향토색을 가지고 있다’는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⁴⁾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에 있어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며,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 보고 있다.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하기도 한다. ¹¹⁵⁾

또한 문화재청장은 동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전문위원의 현지실사에서 검토의견으로 단체의 역사성이 짧고 전승활동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부결되었다. 단체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필자가 앞부분에 밝혔다고 본다. 전승활동의 지속성은 뽕밭조성과 누에치기한 누에고치가 현지에서 형식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상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필자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¹¹⁶⁾ 원재료인 뽕밭조성 면적이 적고 누에고치 공급이 두산리 마

114)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115)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보았다. 경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리 명주 제직자들 및 관계자분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본다.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두산리 손명주가 무형문화재 단체로 인정이 되면 전승계승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2) 무형문화재 단체지정 필요성

무형문화재 단체 지정에 있어 지정기준을 요약하면 향토문화상 가치가 있고 역사성, 예술성의 가치가 크며 향토색이 현저하여야한다. 전승계보가 확실해야하며, 제작기법이 전통적이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제작 도구를 보유해야하며 현재에도 제작 공방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계보, 추천서, 언론보도내용, 발표회, 자료, 주요경력사진 등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전승가치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전승능력, 전승환경 등을 살핀다. 특히 한국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을 살핀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2011년 두산리 손명주짜기 중요 무형문화재 단체지정 신청 행정서류는 통과되었다.

인정조사 지표항목에 따른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에서 견실도와 협업의 적정성을 살핀다. 그런데 검토의견으로 단체의 역사성이 짧고 전승활동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부결되었다. 가장 큰 이유가 현지실사에서 누에치기의 근본 바탕이 되는 원재료가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재료의 현지조달은 뽕밭조성을 통해 현지에서 누에고치를 생산해야함에도 경주시 서면 도리에서 계약 재배하여 고치수급 공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 감점을 받았다.¹¹⁷⁾

두산리 마을은 호(戶)가 아주 작은 마을이다.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일손이 적게 드는 농축산물 즉 토마토 재배나 한우를 사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손이 많이 가고 수익이 적은 누에치기는 기피한다. 그나마 지금까지 명주짜기를 유지 해온 것은 유희 노동력을 이용한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산리 전통명주의 맥을 잇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는 불

116) 두산리 동묵스님 최복출 이수봉구술 2013. 10.

117) 두산리 동묵스님구술, (두산리에서 뽕밭을 조성하여 손명주를 짜며 스님들의 법복으로 판매망을 갖추고 있음) 2011. 10.

가능한 실정이다.

두산리 전통명주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방안이 현재로서 유일한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두산리 전통명주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전승지원금 지급을 통해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 손명주 종사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전수교육 교재 발간, 공연이나 전시 등 공개행사지원과 전승에 필요한 장비제작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전통손명주 제직에 대한 기술을 전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¹⁸⁾

3. 두산명주의 활용방안

생산물 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두어야한다. 두산리 마을의 생산물 명주는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사라졌지만 전국유일 손명주 마을로 단체로 길쌈을 하고 있다. 두산리 전통 손명주 제직법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 손명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길쌈한 손명주의 상품화도 중요하다. 상품화하는 방법으로 두산리 손명주 보존회에서 생산한 전통 손명주를 지방자치단체나 농협과 같은 관련기관에서 구매하거나 관련업체에 지속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는 유통구조 확보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제품을 인정받기위한 특허 및, 상표등록도 필요하다.

오늘날까지 두산리 전통 손명주는 수의용 제직을 위한 명주길쌈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뽕나무 가꾸기와 누에치기다. 명주길쌈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경주시는 누에고치 수급을 위해 경주시 서면 도리마을과 계약재배 하여 전량 구매하여 두산마을에 공급해주고 있다. 두산 마을에서는 아주 소량 재배한다. 경주시 두산리 마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고치로 명주짜기를 해야 한다. 두산리 마을에서 명주짜기를 하기위한 실뽕기 실뜯기 광채나르기 베나르기 바디실깨기 베짜기등 모든 공정이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질 좋은 명주를 제직할 수 있다.

118) 『한국 무형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청, 2013. 10.

국가에서 전국단위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¹¹⁹⁾ 두산리 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하여 농촌 여성 일감 만들기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한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를 했을 때 질 좋은 고치가 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뽕나무밭의 오디를 수확하기 위한 체험학습장을 만들면 일손도 절약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78>에서 처럼 두산리에서 누에를 활용한 누에 빵, 누에사탕, 오디잼, 동충하초, 뽕잎차, 번데기 등 누에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여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방법을 농촌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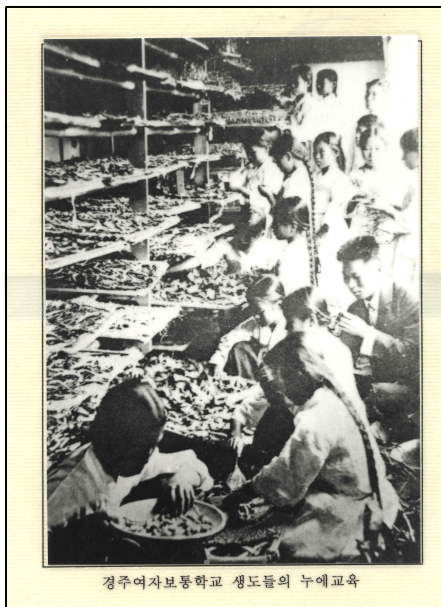
<그림 78> 뽑기한 번데기, 사진 한순희

두산리 전통 손명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전승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시키기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이완(Taiwan)의 정부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타이완 정부는 민족예술과 민속을 문화자산으로 관광정책과 연계하고 있으며, 각급학교교육을 통해 전승되도록 문화자산보존법에서 명시하고 있다.¹²⁰⁾ 민족예술 전승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발표, 출판, 녹음 등을 남길 것을 법적으로

119) 경주시 농정과 제공, 2013. 5.

120) 임장혁, 『아시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논문, 2008, p. 467.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 손명주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두산리에 전통 손명주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79, 80, 81> 초. 중. 고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명주짜기 체험, 염색체험을 하며 손가방, 실크손수건, 넥타이, 스카프, 쿠션커버 등 다양한 체험 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명주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9〉 경주여자보통학교 생도들의 누에교육,
경주시립도서관 옛 사진 자료집



물레질하는 여인

〈그림 80〉 물레질하는 여인, 경주시립도서관 옛 사진 자료집

또한 전통 손명주를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에 산재한 전통복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명주아카데미 체험교실을 개설하여 명주의 전 과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명주짜기는 오랜 숙련을 통해 우수한 보름새 명주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 명주 제작기술의 전 공정을 전통공법으로 배우는 기회는 전통복식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문화적 원형 탐색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 손명주 짜기에 대한 전승교육은 전통복식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문화의 전승과 계승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 손명주 제직법에 대한 육성은 경제성과 관심도에서 비롯된다. 무형문화재 지정에 의한 공공부문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전통 손명주 제직법의 전수가 가능할 것이다. 문화재 보호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문화재 관리정책과 교육정책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때, 두산리 전통 손명주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식하여 공공부문의 지속인 지원정책과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1〉 여자산업 전습생의 잠업실습,
경주시립도서관 옛 사진 자료집

한편,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두산리 전통 손명주 길쌈을 이용한 전통문화는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재창출할 수 있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산명주와 같은 전통직조기술은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전통문화 계승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전통문화를 공유함으로 인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관광 상품개발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두산명주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전시관 내에 명주의 직조과정, 직조기 등과 명주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제품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시관은 단순한 시각적 전시에서 만지고 체험하는 전시가 병행되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전시인형 의상 복원도 두산리 명주를 이용한 복식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전시되고 있는 인형 모두 역사적 고증에 의한 전시물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미 전시되어 있는 것은 재조명되어 역사와 문헌에 맞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베틀가도 두산리 베틀가로 표기되어야 한다. 흥미를 자아내는 전시기법을 개발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두산리 할머니들이 부른

베틀가를 직접 들어보는 녹음장치도 해서 좀 더 생생하고 현장감을 높이는 전시관이 되어야한다. 전시 판매 코너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직조자의 이름을 명기한 원산지 제품을 알려야 한다. 다양한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여 전시 판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두산명주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지역별로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그 행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방문자들의 만족도는 재방문으로 이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통 손명주와 관련하여 구상해 볼 수 있는 문화관광 축제가 가배놀이이다. 명주를 짜는 것과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신라시대에 행해졌던 가배놀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王既定六部 中分爲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既望 每日早集大六部之庭續麻 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小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歌舞百戲皆作 謂之嘉俳 是時 負家一女子 起舞嘆曰 會蘇 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而作歌 名會蘇曲.¹²¹⁾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9年條)

신라(新羅)왕이 육부(六部)를 정하였다. 두 편으로 똑같이 나누어 왕녀 두 사람이 부내의 여자들을 나누어 편을 가르고 조를 짰다. 가을 칠월 열엿새부터 날마다 일찍 육부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여 밤 열 시경에 그만두게 하였다. 8월 보름에 이르러 실력의 공과를 따져 지는 편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내 놓았다.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가 이어지고 이를 가배(嘉俳)라 하였다. 한 여자가 춤추며 탄식하기를 회소! 회소! 하면서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 노래가 구슬프고 아름다워 후에 회소곡으로 이름 지었다. 그 날이 한가위의 기원이 되었다.

가배놀이 축제를 개최하여 두산리 마을의 손명주와 함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하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누에치기의 시기를 맞추어 축제를 개최하여 현장감도 높이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로 사회적 통합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본다. 축제와 공연은 여러 문화요소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공연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추구하는데 있다.¹²²⁾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문

121)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5年條.

122)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4차 유네스코 국제연수 워크샵』, 문화재청, 2001, p. 128.

한 문화유산은 보존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무형문화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림 82> 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두산리처럼 손명주 짜는 마을로 알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틀에 관한 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림 82> 베틀축제, 전남 강진군 베틀축제 홈페이지

셋째, 두산리 명주짜기 체험관에서 지역민 또는 방문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명주짜기 체험코스를 운영한다. 명주 염색체험관을 이용하여 스카프, 손수건, 가방, 머리핀, 이벤트속옷, 베개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지역민과 연계한 다양한 연령의 명주옷 패션쇼를 개최하여 시상하고 포토존을 설치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들을 즐기게 하여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고조된다. 누에를 활용한 먹거리 장터도 만들어 뽕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여 떡 체험 및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이때 뽕잎 삼삼겹살 먹기, 누에가루 감자전, 누에빵, 누에건빵, 상황버섯 사탕 등 다양한 먹거리 축제를 함께 개최하여 축제의 소재를 최대한 홍보한다. 방문객이 직접 뽕잎차를 만들어 우려마시며 가져가는 판매코스를 만들어 핵가족시대의 체험 관광 상품을 만든다. 지역의 농. 특산품관 향토 및 농촌이주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외국음식도 선보여 문화강국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 산업사회에서는 축제의 경제적 수익성도 염두에 두었

을 때 지역 및 사회의 호응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실크로드의 출발지와 기착지가 경주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실크로드의 3대 도시가 경주,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중국의 서한이다. 금(錦)은 비단, 즉 실크(silk)이다. 페르시아에서 중국의 경금(經錦)을 모방 발전시킨 것이 위금(緯錦)이다. 위금(緯錦)은 견직물사에서 화려한 견직물의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는 위금은 물론 양잠의 발생에 대한 기록도 없다. 페르시아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파사국(페르시아)의 대금(大錦) 제작기록에 의하여 이것을 위금으로 보고 제작연대를 당나라 현장 삼장(AD627~650)이 페르시아를 방문한 AD 640경으로 잡고 있다.¹²³⁾ 그러나 일본의 포목순랑(布木純郎)은 3C 중반부터 위금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일설에는 위금이 중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금은 단색의 경사에 색 위사로 직물을 제작하여 문양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복잡한 문양의 금(錦)이다. 금은 견직물중 제작방법이 가장 복잡한 것이다. 금(錦) 제작기술자들이 AD 5C 후반부터 일본으로 가서 제작기술을 알렸다.

신라에는 금전(錦典), 기전(綺典), 별금전(別錦典), 조하방(朝霞房)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견직물의 제작기술이 우수하였던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금의 종류에 있어 고구려지역의 금은 운포금(雲布錦), 오색금(五色錦)으로 기록되고 신라시대 당에 보낸 조하금(朝霞錦)에서 짙은 것으로 보이는 조하주, 어아금(魚牙錦)등은 중국의 주(紬)에서는 보이지 않는 남방형 형식이다. 금(錦)의 경우도 일찍부터 금의 기원연대가 제작되어 남방적, 북방적인 것을 수용한 것에 전통적인 직기를 살려 섬세하고 아름다운 금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본다.¹²⁴⁾ 실크로드가 새롭게 주목받고있는 있는 시점에서 두산리 전통 손명주 제작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가배놀이와 같은 축제를 통해 관광과 산업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 손명주를 이용한 상품개발 및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때 국제 관광도시로서 이미지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산리 마을 명주의 상품성은 인정받아 왔고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123) 민길자, 『한국 전통 직물사 연구』, 「고대직물연구소」, 한림원, 2000, p. 13.

124) 민길자, 위의 책, p. 14.

상품개발을 통해 산업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인 공모전에 의한 패션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방안과 손명주를 활용하여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경주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107호 누비장 장인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 80호 자수장인의 사업장이 황남동에 있다. 두산리 손명주를 누비장으로 만들어 제작하고, 자수장인이 수를 놓은 작품이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제품도 처음에는 프랑스 소도시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되어 명품이 되었다. 제품이 좋으면 마케팅만 잘 하면 승산이 있다. 명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두산마을을 명품화하는 마케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명주와 누비 그리고 자수를 접목한 한국의 핸드 메이드산업으로 육성하면 실크로드 길의 국제적 명품 브랜드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림 83, 84>

둘째, 지역대학과 연계한 디자인 개선 및 제품을 다양화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대구 경북 섬유산업과 연계한 상품개발과 국제적인 유통의 다각화를 위한 전문가의 마케팅 전략으로 전통문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사례로 전통천연염색 전문가 이영애씨는 매년 두산명주를 10필정도 납품을 받아 작품을 만든다. 2012년 뉴욕한인 의류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전통 염색 협회주관 뉴욕 플러싱 대동 연회장에서 열린 “장인정신의 아름다운 외길 뉴욕을 거닐다”란 주제의 패션 페스티벌에서 직접 전통방식으로 염색한 화려하면서도 오묘한 빛깔의 두산 손명주를 선보여 현지 의류업계로부터 관심과 호평을 받으며 두산명주를 알렸다. 기업은 최소에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경주시는 문화 전통의 최대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림 85, 86>



〈그림 83〉 조선향견지색채시험,두산리 〈그림 84〉 명주 전시관 상품, 두산리



〈그림 85〉 손명주 제품개발(넥타이), 경주시 농촌기술센터 〈그림 86〉 손명주와 천연염색, 두산리

V. 맺음말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의 전통 손명주는 역사 문화적 고유성과 지역성 정통성을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점점 사라져 가는 이 마을의 명주 길쌈 문화는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베를 짜고 있는 마을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문화는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명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정통성을 규명해보고자 명주와 관련된 고문헌을 살펴 원문을 인용한 명주의 변천사와 옛 그림과 사진을 통하여 두산리 명주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조사하는 과정에 2012-2013년 문화재복원 국책사업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표장에 경주 두산리 손명주가 채택되었다. 두산 손 명주는 『조선왕조 실록』 중 단종3책, 세조32책, 예종2책, 성종60책등 총 97책의 복제본에 표장복원하기위하여 2012년 10필을 공급했으며 2013년에도 10필을 공급하여 완성하였다. 전통베틀에서 직조한 13새 명주를 사용하여 복원하였다.¹²⁵⁾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을 위한 표장 직물을 선택하기에 앞서 밀도와 실의 직경을 측정하여 가장 근접한 것으로 채택 되었다는 점에서도 두산리 전통명주는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으로 복원해야한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손명주는 전부 두산리에서 생산된 것으로 전국 유일의 손명주 짜는 마을로 남아있기에 소멸되기 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빨리해야하는 이유다. 제직자들은 모두 고령이다. 제직자들이 고령이다 보니 베틀에 올리기까지의 많은 일손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그 제직하기까지의 공정은 공동으로 하고 있다. 이 마을 최고의 솜씨를 자랑했던 김영자(1930년생)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손을 놓았고, 그 뒤를 이어 최복출(1931년), 이수봉할머니(1928년)도 고령이다. 직조자에 따라 제품의 차이가 많이 난다. 베를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숙련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직조 기술이 중요하다. 두산리는 수의용으로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주로 11~13새 명주베가 주류를 이룬다. 이번에도 『조선왕조실록』에 2

125)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주) 다해미디어, 2013, p. 112.

~3명의 작업자가 짠 제품만 선정되었다.

직조활동은 우리 민족사에 유구한 세월과 함께 흘러왔다. 국가 간의 조공과 예물로 바쳐졌고 민간에는 혼수품과 수의용으로 이어져왔다. 현대문물에 밀려 시대를 망라하며 풍미를 누렸던 손명주는 전통 계승되어야 한다. 2011년 두산리 손명주짜기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지정 신청 행정서류는 통과되었다. 인정조사 지표항목에 따른 기량평가에서 검토의견으로 단체의 역사성이 짧고 전승활동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부결되었다. 가장 큰 이유가 현지실사에서 누에치기의 근본 바탕이 되는 원재료가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뽕밭조성면적이 적고 누에고치 공급이 두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보았다. 원재료인 뽕밭조성을 현지에서 하고 누에고치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 두산리 명주 제직자들 및 관계자분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두산리 전통명주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방안이 현재로서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았다. 두산리 전통명주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전승지원금 지급을 통해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 손명주 종사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전수교육 교재 발간, 공연이나 전시 등 공개행사지원과 전승에 필요한 장비제작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전통손명주 제직에 대한 기술을 전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두산리 손명주가 무형문화재 단체로 인정이 되면 전승계승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국가에서도 고령의 제직자들을 감안하여 단체지정을 빨리 해서 전승자 양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지속적인 교육으로 15세(보름새)의 질이 좋은 명주베를 제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앞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두산리 명주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면 지역의 특산품이자 문화산업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전승 및 계승방안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살펴보았다. 두산명주와 같은 전통직조기술은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전통문화 계승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전통문화를 공유함으로 인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관광 상

품개발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 농촌체험마을, 학생체험학습장, 사회적 기업으로 전통계승의 길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관광분야를 접목함으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대안적 관광개발도 제시하였다. 산업분야를 조명하며 장례(葬禮)문화의 변화로 수의가 격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맥이 끊어질 것을 가정할 때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논문은 명주제직의 전반적인 공정을 실질적인 명주 직조작업을 직접 수행함으로 배틀의 원리와 작용을 기술할 수 있었다. 두산리 전통 명주 제직법의 자료로 남겨져 손명주 길쌈법을 오랜 세월동안 작업해온 명주베를 짜는 할머니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손명주로서의 우수한 품질과 희소성이 있어 전승자의 계승방안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두산리 손명주를 재조명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고용 및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參考文獻〉

原典史料

『三國志』

『三國史記』

『翰苑』

『隋書』

『舊唐書』

『通典』

『梁書』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國文論著

강명관, 『조선풍속사1 조선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푸른역사, 2010.

金文洙, 『잠사학개론』, 鄉文社, 1996.

김미자,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메고』, 우리나라 길쌈의 역사, 뿌리깊은나무, 1990.

김보연, 『명주, 모시, 춘포의 제직 재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김재식, 김기문, 『경주풍물지리지』, 晉宇文化財團, 1991.

김종덕, 『원조의 정치 경제학』, 경남대 출판부, 1997.

김정숙, 『고대여성의 삶』, 경북여성사, 2004.

김정숙 『신라시대 여성의 직조활동과 관직진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학술지 논문, 2010.

김준근,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09.

문경현, 『韓國古代衣服素材의 染色디자인 知識』,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03.

민길자, 『한국 전통 직물사 연구』, 고대직물연구소, 한림원, 2000.

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木棉中中綿辨證說, 1810.

손진태, 『신화상에서 본 고대의 여성관』, 손진태전집6권, 대학사, 1981.

스왈른, 『기산김준근 조선풍속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시월, 2008.

이은진,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 才物譜, 2004.

이지영, 「직물신의 전승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구비문학연구』 14, 2002.

유태용, 『문화란 무엇인가』, 학연문화사, 1999.

임상호, 『장황재료로서의 수직명주 제작기술 보전 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임장혁, 『아시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비교민속학회제37집, 중앙대학교 민속학과논문, 2008.

장경희, 『명주짜기』, 화산문화, 2002.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1998.

정병모, 「기산 김준근 풍속화의 국제성과 전통성」, 『강좌미술사』 14,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정형호,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에 나타난 민속적 특징』, 중앙대학교 민속학논문, 2010.

조효숙, 『高麗時代의 絹織物과 그 製織에 관한 研究』, 第15號, 服飾, 1990.

조홍윤, 『기산풍속도1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황경순, 『경주 문화연구5』,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2.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백 년 전의 기억』, 삼화인쇄, 200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2』, 민속원, 2006.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한국박물관회, 2002.

『대한잡사회』, 한국잡업사, 1989.

『문화재청외,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4차 유네스코 국제연수 워크샵』, 2001.

부산 근대 역사관, 『사진 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2004.

(재) 신라문화유산 연구원, 『경주 신월성 직원사택 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주) 다해미디어, 2013.

『한국 무형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청, 2013.

Kneafsey, M. Rural cultural economy: Tourism and social rel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01.

Richards, Greg,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uropean Cult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96.

Richard, Greg edit, *Cultural Tourism in Europe*, CAB International. 1996.

Masters's Degree Thesis on Literature

Legitimacy and passing on the tradition of traditional silk
- Centered on Silla Silk from Dusan Village, Gyeongju City

Gye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y
Han Soon Hee

Silk is a plain woven fabric created from raw material drawn from cocoons, woven with weft and warp, and is the only textile created from animals. The ancestral tradition of raw silk weaving from our ancestors has been passed on to the present day.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traditional silk making technology is disappearing due to mechanization and cost-saving reasons brought on by industrialization. Therefore if we don't preserve and protect our heritage, it will soon be extinct.. I have researched the history of silk,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silk related documents and quoting original texts.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traditional succession of Dusanri silk, I have observed the manufacturing process, examined genre paintings of Gisan as well as old pictures and have compared the legitimacy of Dusan silk. After researching on original Dusanri traditional hand made silk method, I proposed a basic framework for searching a plan to pass on this tradition and continuously preserve and protect it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f silk has the historical properties and legitimacy to b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propose this plan to make silk making techniques designated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ntinuously preserved and passed on.

"Annals of Joseon Dynasty" replica, which was carried out as a national policy project for 2012~2013 cultural restoration.

In order to mark the replica of part of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records, a total of 97 royal palace books (3 books of King Danjong, 32 books of King Sejo, 2 books of King Yejong, and 60 books of King Seongjeong), they used 13 new silks woven with a traditional loom using 10 marks of 2013 and 10 marks of 2013, and these were verified to have been used in the "Annals of Joseon Dyansty".

A standard method of weaving Dusanri traditional silk were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se traditional techniques and methods have been passed on until the present day. And their historic legitimacy has been verified through document researches. A necessity is felt to preserve this tradition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we need to look into ways to educate people on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make it into a tourism resource and industrialization. Consequently, my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following purpose.

I have looked into a plan to pass on Doosan Silk tradition as it is a local specialty in the sense that it is connected to cultural industry.

I proposed an alternative tourism development plan to create tourism resources of traditional culture, thus creating jobs for local people and increasing income.

As the number of artisans producing funeral clothes is decreasing sharply today, and we feel that tradition will not be passed on, we sense a dire need to invest and focus our interests in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 hope that the hand woven silk work will help increase the dignity and self-respect of grandmothers who have woven silk for many decades. Hand silk has superior quality and is very scarce, so I believe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plans for silk weavers to pass on this tradition.

Furthermore, I hope that Dusanri Silk is revisited and contributes to revitalizing local culture. Based on this, I sincerely hope it leads to a path that will eventually attract tourists, contribute in beneficially commercialize culture, create jobs and increase local income in the region.